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최항섭(국민대·부교수)
그레이스정(서울대·부교수)
- ▶ 연구보조원 : 차한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은 현재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동시에 미래 한국사회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주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창조적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청소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러 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은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이 향후의 미래에도 지속되어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현재부터 향후 25년여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사회 미래모습을 미리 전망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2013~2014년의 2년에 걸쳐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고,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올해의 연구 결과인 여러 환경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 자문위원으로, 전문가 조사자로, 또,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 분들의 참여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향후 이 연구가 무사히 수행, 완료되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40년까지의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 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 둘째,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올해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 차원으로 나눠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고, 둘째,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 측면으로 나눠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으며, 셋째,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메가트렌드로는 첫째,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둘째,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셋째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넷째,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다섯째,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여섯째,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를 제시하였다. 미시환경트렌드로는 가족환경 영역에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등 7가지, 또래환경 영역에서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등 3가지, 학교환경 영역에서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 3가지, 매체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등 4가지, 진로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등 3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 전망, 메가트렌드, 미시환경 트렌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사회의 미래모습을 미리 전망해 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3년~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첫째,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함. 둘째,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메가트렌드의 추출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메가트렌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여섯차원으로 나뉘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미시환경트렌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환경수준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으로 나뉘 앞의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관련된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 전문가조사 :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메가트렌드의 추출

이 연구에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2)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이 연구에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추출한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음.

-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3) 전문가 조사

-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조사 실시결과, 앞에서 제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최종 트렌드의 제시

- 최종 트렌드의 제시 : 앞에서 추출한 메가트렌드 및 미시환경트렌드들과 트렌드들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 전망의 최종결과로 제시함.

4. 정책적 함의

- 첫째, 이 연구는 단기 연구가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환경트렌드를 추출한 장기 전망적 연구이므로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이 연구는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 트렌드를 모두 함께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할 때 거시, 미시 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5가지 미시영역으로 나눠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망 제시에 있어 청소년 영향요인을 미시환경별로 나눠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1)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8
2) 콜로키움 개최	8
3) 전문가 자문	9
4) 전문가 조사 실시	9
5) 정책자문회의 개최	10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1
1. 관련 주요 선행연구	13
2. 이론적 논의	15
III.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21
1. 메가트렌드	23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7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8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1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46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50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53
2. 미시환경 트렌드	57
1) 가족환경	57
2) 또래환경	63
3) 학교환경	67

4) 매체환경	75
5) 진로환경	81
IV.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조사	85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87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	90
V. 결론	93
1. 연구의 요약	95
2. 정책적 함의	105
참고문헌	107
부 록	115
부록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117
부록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안전·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144
부록3.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비행·범죄)에 대한 전문가 조사	171
부록4.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복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	198
부록5.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건강)에 대한 전문가 조사	225
부록6.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교육)에 대한 전문가 조사	252
부록7.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진로·직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279
부록8.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활동)에 대한 전문가 조사	306
부록9.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권리·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333

표 목차

〈표 Ⅲ-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8
〈표 Ⅲ-2〉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 2010-2060	28
〈표 Ⅲ-3〉 체류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30
〈표 Ⅲ-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현황	32
〈표 Ⅲ-5〉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33
〈표 Ⅲ-6〉 탈북청소년 연도별 재학생 수	33
〈표 Ⅲ-7〉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34
〈표 Ⅲ-8〉 혼인기간에 따른 이혼인구의 구성 비율	34
〈표 Ⅲ-9〉 한부모가구 비율	35
〈표 Ⅲ-10〉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36
〈표 Ⅲ-11〉 가족형태별 분포	36
〈표 Ⅲ-12〉 연령별 1인 가구에서의 비율	40
〈표 Ⅲ-13〉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2003-2009	47
〈표 Ⅲ-14〉 한국인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	50
〈표 Ⅲ-1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61
〈표 Ⅲ-16〉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62
〈표 Ⅲ-17〉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영역	65
〈표 Ⅲ-18〉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66
〈표 Ⅲ-19〉 교육기회의 충족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1990-2008	73
〈표 Ⅲ-20〉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83
〈표 Ⅲ-21〉 지난 1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83
〈표 Ⅳ-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89
〈표 Ⅳ-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전체)	9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6
【그림 Ⅲ-1】 국가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24
【그림 Ⅲ-2】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25
【그림 Ⅲ-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29
【그림 Ⅲ-4】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2000~2011)	30
【그림 Ⅲ-5】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34
【그림 Ⅲ-6】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1994년~2011년)	37
【그림 Ⅲ-7】 조손가구수 : 1995-2010	38
【그림 Ⅲ-8】 가구원수와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	41
【그림 Ⅲ-9】 투명성지수 백분위:2000-2010	48
【그림 Ⅲ-10】 지니계수의 추이: 1990-2011	51
【그림 Ⅲ-11】 인터넷 이용률의 변화: 2001-2011	54
【그림 Ⅲ-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001-2011	56
【그림 Ⅲ-13】 가족과의 생활에 대한 청소년들 만족도 한국, 중국, 일본 비교	63
【그림 Ⅲ-14】 학교에서 집단따돌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청소년들 예측 한국, 중국, 일본 비교	67
【그림 Ⅲ-15】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69
【그림 Ⅲ-16】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	70
【그림 Ⅲ-17】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의견 비교	71
【그림 Ⅲ-18】 한국청소년들의 학령별 사회현실 만족도	71
【그림 Ⅲ-19】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72
【그림 Ⅲ-20】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수 추이	74
【그림 Ⅲ-21】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포용성 조사	75
【그림 Ⅲ-22】 세대별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7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는 말 그대로 향후 미래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를 전망해보는 연구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일어난 현상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예측해 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타당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은 미래사회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더욱 증진시켜 좋은 모습의 행복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청소년 분야에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 분야의 미래사회의 모습을 미리 전망해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은 더욱 증진시켜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의 변화추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결코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 가구 청소년들의 수도 늘고 있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수도 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으며, 아동빈곤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통계청, 2012d;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1)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소년 음주율과 흡연율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충동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가출경험률도 증감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사행성 게임 이용률은 늘어났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도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 통계청, 2012d;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 의해 조기유학, 사교육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대학진학률은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높은 대학진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선호는 편중화되어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통계청, 2012d;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비행의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의 지속, 취업 불확실성의 지속 등은 청소년 세대 자체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행복한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 전망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는 5년이라는 비교적 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이다. 수십년 후를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 전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기현, 201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계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하여 23년~24년 후를 전망하는 2030년 미래전망 연구를 일차적으로 대규모로 수행한 바 있다(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김기현 외, 2007).

1차년도인 2006년에는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I’이라는 제목하에 교육, 가족, 직업진로, 문화여가, 참여인권의 5가지 부분으로 팀을 나눠 미래환경변화의 핵심 트렌드들을 제시하였고(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임천순, 윤경원, 하연순, 2006; 김현주, 손승영, 이진숙, 2006; 전상진, 김민, 최순중, 2006; 김현태, 김영인, 고원, 허동원, 2006; 진미석, 손유미, 주용국, 2006), 2차년도인 2007년에는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이라는 제목하에 교육, 가족, 직업진로,

문화여가, 비행의 5가지 부분으로 팀을 나눠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김기현 외, 2007;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2007; 전상진, 김민, 최순중, 장근영, 2007; 손유미, 진미석, 주용국, 2007). 이 선구적인 연구결과는 향후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번에는 선구적으로 수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기관 고유과제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26년~27년 후를 전망하는 2040년 미래전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2040 미래전망 연구는 분야별로 나눠 대규모로 진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가 수행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0년 후인 2040년도를 전망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라 2030 미래전망 연구와 일부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1차 연구가 수행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2차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미래트렌드 전망 등 연구결과의 일부분이 불가피하게 중복될 수가 있다²⁾. 그러나 이번 2040 미래전망 연구의 일부 연구결과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결과와 중복된다면 그 자체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연구결과가 기존 2030 미래전망 연구결과에 비해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 역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트렌드에 대해 미래 전망을 제시해보고, 이에 바탕해 둘째, 전망한 미래사회 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며, 1차년도인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차별 세부 연구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그림 I-1】과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우선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을 마련하고, 둘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며, 셋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의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며, 넷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 연구에서는 가급적 1차 2030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 (2013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제시를 위한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마련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제시
2차년도 (2014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전문가 FGI 등 검토 •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분석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FGI 등 검토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등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전문가 FGI 등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며,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FGI 등 검토를 거친 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거치고,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현재 한국 청소년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한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들이 변화된 미래환경에 적합한 여러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기존에 어떤 미래전망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인지 등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미래전망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환경을 사회전반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들과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시환경트렌드들의 둘로 나뉘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해낸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 트렌드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다음, 미래 청소년 환경트렌드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미래사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호, 비행·범죄, 복지, 건강,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등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최종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제시하고,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정책자문회의를 거친 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미래 연구의 방법에는 추세외삽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시나리오 기법, SWOT분석, 의사결정 나무, 임무흐름 다이어그램, 교차영향분석, 역사적 유추, 모의실험, 게임기법, 시스템 동학, 전문가 패널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배규한, 2000; 이종성, 2001; 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이 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추세외삽법,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인 델파이 및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기법 등이 있다.

추세외삽법은 반복횡단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한 후 이 추세가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 트렌드들을 예측하는 방법이다(배규한, 2000;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의 하나인 델파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전문가들간의 의견을 종합해내는 방법이다. 보통 양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 역사적 델파이 등의 하위 방법들이 있다(배규한, 2000; 이종성, 2001;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델파이를 시행할 필요성이 많지 않을 때는 일회의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브레인스토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주제만 제시한 후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토론가운데 미래에 관한 예측과 전망을 정리해내는 방법을 말한다(배규한, 2000). 브레인스토밍을 대신해서 초점집단인터뷰(FGI)도 사용된다.

시나리오 기법은 연구과정에서 추출해 낸 환경변수 등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조합하여 미래에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그려보고 짐작하여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을 말한다(배규한, 2000;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올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년에는 시나리오 기법, 전문가 FGI, 전문가 조사 방법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외 콜로키움 개최와 정책자문회의도 실시하였다.

1)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미래 청소년환경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해 내기 위해 기존의 여러 문헌자료와 통계추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6가지 미래 청소년환경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2) 콜로키움 개최

연구진에서 미래연구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연구 방법에 대해 원내외 연구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미래연구 전문가 분을 모시고 미래연구방법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콜로키움은 2013년 6월 4일(화) 오후 2시에 미래연구전문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홍렬 박사님을 모시고 ‘미래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 발표일시 : 2013년 6월 4일(화) 오후 2시~4시
- 발 표 자 : 강홍력 박사(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발표주제 : 미래에 대한 접근
- 발표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3) 전문가 자문

여러 문헌자료와 통계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4) 전문가 조사 실시

앞에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를 대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10월~11월에 이메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사회, 사회변동, 청소년 전문가들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조사는, 연구진에서 추출한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제시한 다음, 각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묻은 다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청소년 정책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안전·보호, 비행·범죄, 복지, 건강,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등 청소년정책 분야별로 각 12명의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관련 학과(청소년학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현장 전문가 분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다.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조사는 각 정책분야별로, 연구진에서 추출한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제시한 다음, 각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〇〇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라고 물은 다음,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 정책적 중요성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는 8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합한 뒤 8로 나눈 다음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5) 정책자문회의 개최

정책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연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서 작성단계와 결과보고서 작성단계에서 정책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책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다. 정책자문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은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관련 주요 선행연구
2. 이론적 논의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³⁾

1. 관련 주요 선행연구

향후 미래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가에 대한 전망적 연구는 각 분야별로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인 가족, 교육, 청소년 분야에서는 수년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2030년 혹은 2040년 비전 및 과제 제시를 목표로 미래 전망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분야에서 어떤 미래전망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수행되어 오고 있는 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들 미래전망 연구의 흐름속에서 본 연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몇몇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분야에서 최근에 수행된 주요 미래전망 연구를 열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분야에서는 2006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성서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강홍렬 외, 2006; 원영희, 이현희, 한정란, 장은정, 2006; 윤홍식, 조막래, 윤성호, 2006; 최은영, 성은수, 유호선, 이선형, 2006; 임인숙, 김수영, 최은정, 이동주, 2006; 김미숙, 장화경, 홍미, 2006).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속에서 정보화가 가족의 재생산, 교육, 정서, 경제, 복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모습과 변화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강홍렬 외, 2006).

또한 2011년부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연구를 2014년

3)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까지 장기연구로 수행해오고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2011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가족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가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연구를 수행하였고(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서용석, 최호진, 정다혜, 2011; 윤홍식, 류연규, 송다영, 신경아, 윤성호, 이숙진, 안세아, 2011; 이명진, 최슬기, 2011), 2012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가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I)’연구를 수행하였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2012; 박병원, 홍성주, 박동오, 현재환, 2012; 김규륜, 최용환, 유재의, 2012; 우석진, 민세진, 2012; 김혜영, 김상돈, 박선애, 2012). 이 연구에서는 2030년의 가족분야 미래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차년도인 2011년에 가족변화와 관련된 환경을 분석하고, 2차년도인 2012년에 주요 미래예측요인 전망을 바탕으로 가족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3차년도인 2013년에 가족의 변화에 따른 주요 가족지원정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4차년도인 2014년에 가족변동에 따른 관련 정책영역별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다음으로 교육 및 직업 분야에서는 200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초중등학교의 미래’연구를 수행하였다(김혜숙, 2005).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 초중등학교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한 후 향후 미래 교육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김혜숙, 2005).

또한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유현숙, 이정미, 최정윤, 임후남, 권기석, 서영인, 류장수, 2011). 이 연구는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중장기 발전방향인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의 메가트렌드 분석, 변화동인 분석, 시나리오 분석, 정책과제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유현숙 외, 2011).

그리고 2011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30 미래의 직업생활연구’를 수행하였다(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 2011).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탐색하여 미래 직업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직업생활을 위한 정책비전과 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 직업생활관련 환경스캐닝을 실시하여 트렌드를 도출한 다음,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 2011).

다음으로 청소년분야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를 수행하였다(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김기현 외, 2007). 2006년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하여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I’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가족, 직업진로, 문화여가, 참여인권의 5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연구를 수행하였고(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임천순, 윤경원, 하연순, 2006; 김현주, 손승영, 이진숙, 2006; 전상진, 김민, 최순중, 2006; 김현태, 김영인, 고원, 허동원, 2006; 진미석, 손유미, 주용국, 2006), 2007년에도 역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하여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가족, 직업진로, 문화여가, 비행의 5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연구를 수행하였다(김기현 외, 2007;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2007; 전상진, 김민, 최순중, 장근영, 2007; 손유미, 진미석, 주용국, 2007). 이 연구에서는 2030년 청소년 분야 비전 및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하여 1차년도인 2006년에는 통계자료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의 핵심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어 2차년도인 2007년에는 핵심트렌드에 기초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후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김기현 외, 2007).

이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2007년에 수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에 이어 정확히 7년 뒤인 2013년~2014년에 수행되는 2040 미래전망 연구로서 청소년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행되는 미래전망 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혹자는 불과 7년 전에 2030 미래전망 연구를 분야별로 연구진을 나눠 체계적으로 수행한 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미래전망 연구가 일정부분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현재의 연구결과가 7년 전에 수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2030 미래전망 연구의 타당성을 재입증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고, 만약 현재의 연구결과가 7년 전에 수행된 2030 미래전망 연구결과와 일부라도 다르다면 새로운 미래전망에 의한 새로운 정책적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결과에 더해서 청소년 미래전망 연구결과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미래관련 연구는 어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기술하거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거나 하는 방식의 연구가 아니다. 미래 연구는 말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실태를 최대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동원해 추정해보는 것이다.

미래연구에서 미래는 ‘있음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의미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Miller, 2003, 하연섭, 2005에서재인용; 배규한, 2000; 김경동, 2002; 김혜숙, 2005).

‘있음직한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판단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이고, ‘있을 수 있는 미래’는 ‘있음직한 미래’에 비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이며, ‘바람직한 미래’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하는 미래를 말한다(Miller, 2003, 하연섭, 2005에서재인용; 배규한, 2000; 김경동, 2002; 김혜숙, 2005). ‘있음직한 미래’, ‘있을 수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미래연구에서는 ‘있음직한 미래’를 추정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미래연구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맹용길, 1997; 김혜숙, 2005), 통상적으로 미래연구를 하는 목적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여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미래 연구의 시점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나 이론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통상 30년은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연구한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연구도 2006년에 연구를 시작하였고(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김기현 외, 2007),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30년 미래비전 설정을 목표로 시작한 연구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연구도 2011년에 연구를 시작하였으며(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도 2011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유현숙 외, 2011).

이 연구에서의 미래연구시점은 2040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미 청소년 분야에서 2006년에 2030년 전망을 목표로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 연구를 기 수행해놓은 데다 연구시점인 현재 2013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30년은 넘지 않는 시점이 2040년이기 때문이다.

미래연구진행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첫째,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관찰해야 할 환경을 나눠 설정하여(예를 들면, STEEPV : Social, Tech, Economics, Environmental, Political, Value) 각 차원의 환경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 트렌드들을 밝혀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둘째, 각 차원별로 추출된 핵심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한다. 첫

번째 과정에서 핵심트렌드들을 발굴해내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발굴된 핵심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해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셋째,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핵심트렌드들의 예측이 이뤄진 후 이 예측들을 조합하여 가능한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넷째,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한다. 앞의 3단계까지가 ‘있음직한 미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여 비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청소년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고 미래전망을 제시한 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추출한 핵심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관찰해야 할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여섯 차원으로 나눠 설정한 후,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각 차원에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그리고 이 6가지 메가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인접하고 있는 환경 수준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으로 나눠 하위유형으로 설정한 후, 앞에서 살펴 본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각 미시환경 하위유형별로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보았다.

미시환경의 구분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중 미시체계론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주지하듯이, 브론펜브레너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눠 제시하였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미시체계는 가정, 놀이터, 이웃, 유아원, 학교, 학원, 교회, 병원 등과 같이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장 인접한 환경을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이러한 미시체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이다. 청소년들은 미시체계 환경내에서 부모의 친밀한 애착제공, 유용한 정보제공, 또래집단의 유의미한 규범제공, 역할요구, 이웃의 유의미한 규범제공, 역할요구, 교사의 애착제공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사이의 연관과 상호작용을 나타낸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부모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등과 같이 미시체계인 가정과 학교간의 관계 등이 중간체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로서의 중간체계도 간접적으로 미시체계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외체계는 부모의 친구관계,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교육위원회, 지역사회 복지관, 대중매체 등과 같이 청소년들의 인접환경이 아니면서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외체계는 가정, 학교와 같은 미시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거시체계는 사회문화적인 신념, 가치관, 태도, 문화, 규범, 법률, 정책 등의 환경을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와 같은 하위체계 들에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시간체계는 한 시점의 경험이 시간적으로 누적되어 다음 시점의 청소년들의 경험과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중 미시체계론을 바탕으로 미시환경의 하위유형을 구성하였다. 다만 브론펜브레너가 외체계의 일부로 분류한 대중매체 혹은 매체가 다른 외체계와 달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미시환경의 한 하위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시환경 하위유형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앞에서 추출한 핵심트렌드들인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미래사회, 사회변동,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추출한 핵심트렌드들인 메가트렌드들과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청소년 안전·보호(아동학대, 아동실종, 안전사고, 학교폭력,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인터넷중독, 정보보호 등), 비행·범죄(비행예방, 범죄예방, 교정교육, 피해자지원 등), 복지(취약계층청소년지원(가출청소년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드림스타트사업운영, 디딤씨앗통장지원, 가정보호지원, 시설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상담지원(상담서비스, 청소년전화 HelpCall388, 청소년동반자 YC프로그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CYS-Net, 취약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 DoDreamZone 등)), 건강(체격·체력, 영양·비만, 음주·흡연, 정신건강 등), 교육(학업성취, 학교생활만족,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생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 등) 등), 진로·직업(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직업역량 개발, 일자리 마련, 고용촉진 등), 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지원 등), 권리·참여(권리증진, 참여활성화)의 청소년 정책분야별로 향후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 각 분야별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2b; 관계부처 합동, 2012). 정책영역별 구분은 2012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2b),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2)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세부화시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추출된 핵심트렌드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1. 메가트렌드
2. 미시환경 트렌드

제 3 장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⁴⁾

1. 메가트렌드

이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하며, 이러한 메가트렌드하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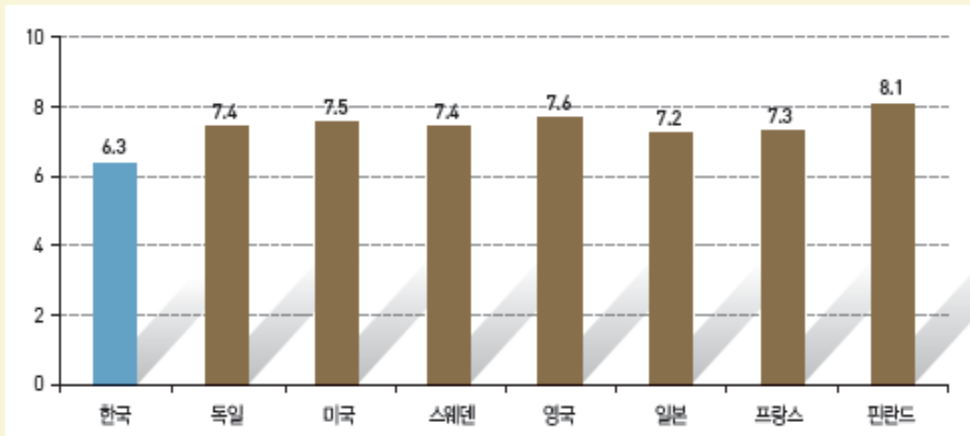
청소년은 사회의 미래다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역시 그 주체는 청소년일 수밖에 없다.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구구성의 구조는 어떠한 지, 어떠한 세계관을 갖는 지, 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하고 있는 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지, 어떠한 기술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 등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은 어떠한가? 객관적으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 World Value Survey 결과를 보면 15-29세 사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0;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10점 척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6.3점에 불과하였다. 항상 삶의 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들어 높은 실업률, 인종차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의 7.3점,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한 청소년의 무기력증이 우려되던 일본의 7.2점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0;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4) 이 장은 최형섭 교수(국민대), 그레이스정 교수(서울대), 이경상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국가별 삶의 만족도(15~29세)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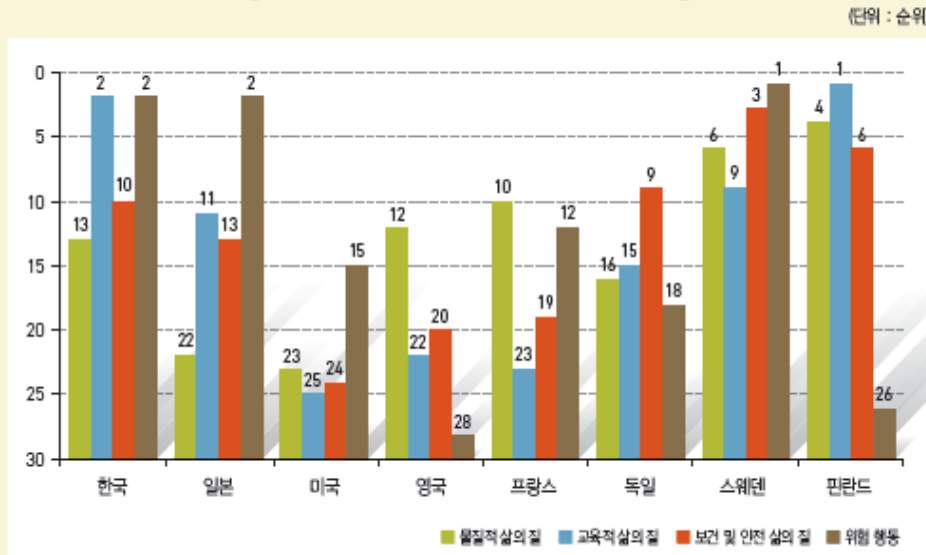
자료 : The World Values Survey(2010). Values Survey Databank.

* 출처: 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0, The World Values Survey.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그림 III -1】 국가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인 지표라면 삶의 질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먼저 물질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일본(22위), 미국(23위)보다는 더 높은, 영국(12위), 프랑스(10위)보다는 더 낮은 순위로서 중간 수준인 13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09;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OECD 국가 중 특히 소비사회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더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직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물질주의에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건 및 안전 삶의 질은 10위, 위험행동 삶의 질은 2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교육적 삶의 질이 2위라는 것이다(OECD, 2009;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한국의 청소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굳이 지표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지나친 학업열과 경쟁, 그리고 청소년들의 좌절감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 보고서에서 한국 청소년의 교육적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한 것은 학업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과 가족의 지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실제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



* 출처: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그림 III -2】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위의 두 가지 지표에서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다지 좋지 않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청소년정책의 미래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주요 변수로 아래 6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6가지 차원의 변수의 설정은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이다(여성가족부, 2012b; 여성가족부, 2013; 통계청, 2011b; 통일부, 2013; 통계청, 2011c).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청소년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년간 이러한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고립사회로의 전환과 개인주의의 강화이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1a). 이때 고립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사회화 과정에서의 고독감이다. 고독감은 주로 노년층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에 못지않은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서구의 개인주의가 한국의 경쟁사회적인 특징과 연동되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관계에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네트워킹 양식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Maffesoli, 1979; Maffesoli, 1997).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었던 근대를 지나 탈근대로의 전환기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를 기제로 하여 감정들이 분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계약이 중심이 되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관계가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 부족주의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

사회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성원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김상욱 외, 2009; 국제투명성기구, 2011). 이 판단의 가장 큰 준거가 바로 그 사회의 공정성이다. 한국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 즉 사회자본은 한국청소년의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공동체의식, 사회통합 등이 정치경제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에 공정성 인식, 신뢰,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 사회자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이다.

사회구조에서는 1997년을 전환점으로 이제 한국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양극화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한다(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이때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수준 등 양적 지표상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이 양극화는 한국사회에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을 갈라놓는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술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들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Beck, 1992).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성원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라온 세대이기에 이들의 미래의 삶에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미디어, 소위 소셜미디어가 사회성원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환경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추적할 것이다.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청소년의 미래에 있어서 먼저 제시할 메가트렌드는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이다.

통계청이 2010년 총인구를 기준으로 배포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성장률, 즉 전년대비 인구변화율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9인데 반해 2000년도에는 0.84, 2010년도에는 0.46까지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인구성장률이 206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1e, 통계청, 2011c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인구성장률의 감소는 아래의 표에도 제시된 것 같이 지난 20년간 지속된 출생률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2010년 출생아수가 47만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41만명, 2060년에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2011e, 통계청, 2011c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성장률 감소 추세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국가별 인구성장률에 있어서 중국은 1.08에서 0.51로, 인도는 1.93에서 1.43으로, 미국은 1.07에서 0.8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 (1.01→0.52)보다는 전반적인 인구성장률이 높았다. 반대로 일본 (0.31→0.02)의 경우에는 인구성장률이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11e, 통계청, 2011b에서 재인용). 2030~2035년에는 한국의 인구성장률이 중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2011e, 통계청, 2011b에서 재인용).

표 III-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인구성장 구성요인		
		남자	여자		출생	사망	자연증가률 ¹⁾
1990	42,869	21,568	21,301	0.99	650	242	9.5
1995	45,093	22,705	22,388	1.01	715	243	10.3
2000	47,008	23,667	23,341	0.84	635	246	8.2
2005	48,138	24,191	23,947	0.21	435	244	3.9
2010	49,410	24,758	24,653	0.46	470	255	4.3
2011	49,779	24,942	24,837	0.75	471 ¹⁾	257 ¹⁾	4.3 ¹⁾
2030	52,160	25,901	26,259	0.01	—	—	—
2060	43,959	21,767	22,193	-1.00	—	—	—

* 주: 1) 자연증가률 =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수

* 출처: 통계청, 2011e,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1c, 2011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에서 재인용.

표 III-2 주요 국가 인구성장률, 2010-206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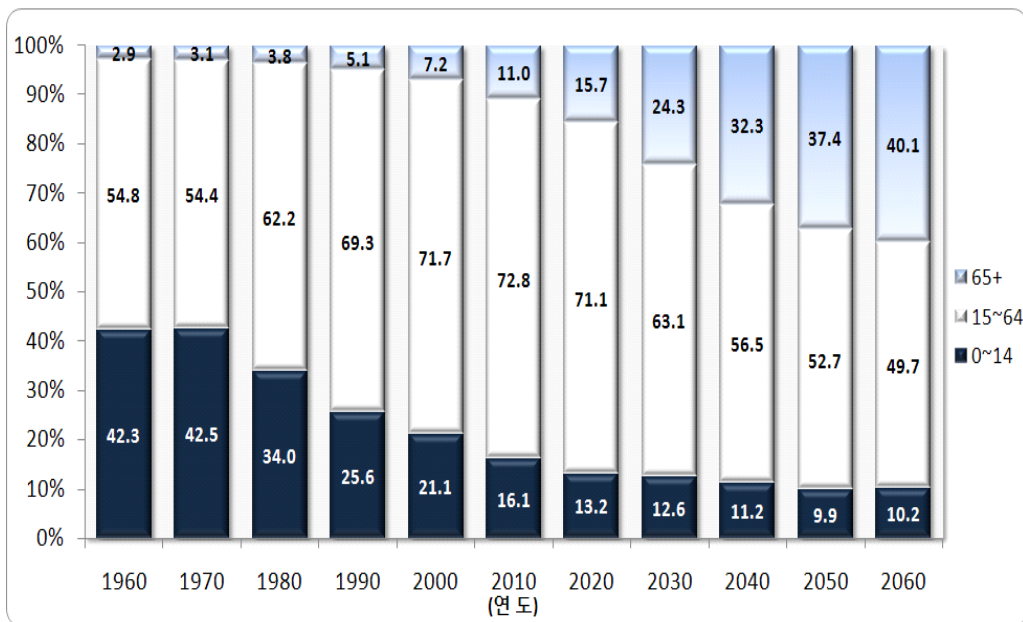
연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스웨덴	영국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2010-2015	0.484	0.419	-0.073	1.321	0.563	0.603	0.227	0.622	0.511	-0.203	0.388	0.924	0.852	1.325
2030-2035	-0.104	-0.166	-0.483	0.726	0.281	0.36	-0.103	0.192	0.338	-0.259	-0.018	0.535	0.61	0.745
2060-2065	-1.071	-0.734	-0.517	-0.009	0.159	0.076	-0.322	-0.443	0.207	-0.243	-0.265	0.271	0.41	0.317

* 출처: 통계청, 2011e,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1b, 장래인구추계(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전반적인 인구성장률 감소에 따라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구 구성비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9~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2b). 통계청(2011b)에 의하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1972년도에는 1,386만명인 총인구의 41.4%를 차지했던 것이 2010년도에는 798만명(16.1%)으로 감소했다. 또한 통계청(2011b)은 2040년까지 유소년 인구가 총인구의 1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9~24세의 청소년 인구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총인구 구성비가 1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2011b)에 의하면 1960년도에는

총인구의 불과 2.9%였던 고령인구가 2010년도에는 11%를 차지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32.3%까지 증가하여 10명 중 3명꼴로 성장할 것으로 통계청(2011b)은 전망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 $[(65\text{세이상인구})/(15\sim 64\text{세인구}) \times 100]$ 가 1990년 7.4%에서 2011년 15.6%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57.2%까지 증가하는 등 앞으로 30년간 약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2011b)은 예상했다. 노령화지수 $[(65\text{세이상인구})/(0\sim 14\text{세인구}) \times 100]$ 역시 1990년 20.0%에서 2011년 72.8%, 그리고 2040년에는 288.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통계청, 20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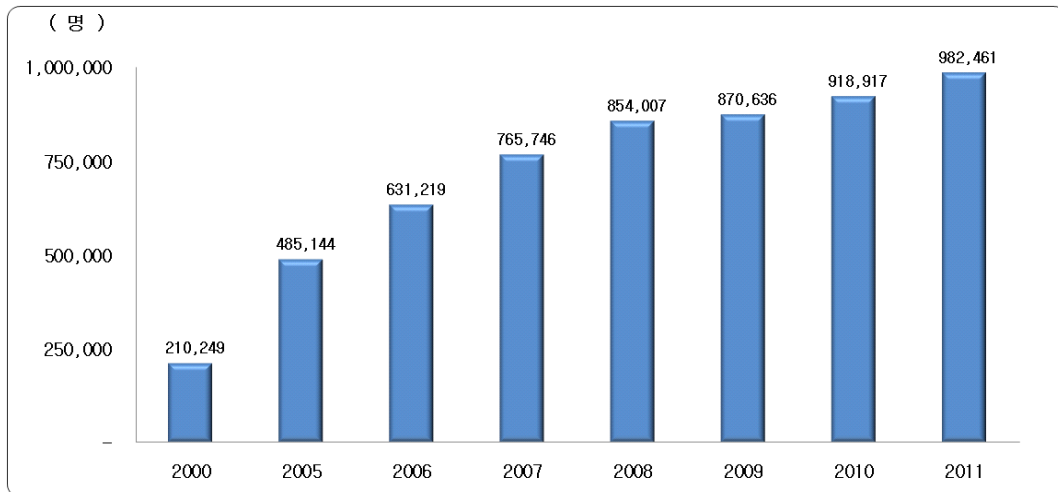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2011b, 장래인구추계(보도자료).

【그림 III-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수는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2000년도에는 총 210,249명의 외국인이 장기체류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에는 982,461명으로 2000년부터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c). 영주를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수가 2005년에는 11,239명에서 2011년에는 64,979명으로 5배 남짓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내 결혼이주가족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도 109,029명에서 231,248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각년도, 통계청, 2011c에서 재인용).



* 출처 : 통계청, 2011c.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

【그림 III-4】 연도별 등록외국인 현황(2000~2011)

표 III-3 체류목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등록외국인 (장기체류)	산업연수	교수 및 연구	회화지도	예술흥행	특정직업	비전문 취업	유학	영주
2000	210,249	104,847	1,450	6,414	3,916	3,143	—	3,762	—
2005	485,144	55,154	2,804	12,001	3,816	4,401	109,029	20,347	11,239
2009	870,636	11,612	4,078	22,018	4,083	8,705	184,958	62,112	22,446
2010	918,917	3,771	4,550	22,800	3,995	10,382	217,108	69,655	45,475
2011	982,461	3,133	5,032	22,114	3,696	13,826	231,248	67,839	64,979

* 주: 2011년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월보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통계청, 2011c.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지난 몇 년간 보여진 외국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과하고 전체 인구의 감소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통계청(2011b)은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2011b)은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제이동(국경을 넘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를 의미)에 의한 인구증가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8만명, 2020년에는 4만명, 2060년에는 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2011b). 또한 국제이동에 의한 유입인구는 2010년 인구 천명당 1.67명에서 2060년에는 0.53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2011b). 따라서 외국인 인구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총 인구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2013)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이주자(내국인과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거주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내국인과 혼인 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수는 2007년(87,964명)과 2012년(144,214명)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혼인 귀화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총 36,367명의 여성이 혼인 귀화자로 집계되었는데 2012년에는 72,205명으로 5년간 그 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법무부, 2013).

이처럼 국제결혼가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의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만 6세이하 자녀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6세이하 자녀수가 2007년에는 26,44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만 7세~12세 이하의 자녀 수는 2007년 14,392명에서 2012년 40,235명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만 13세~15세 이하는 2007년 2,080명에서 2012년 15,038명으로, 만 16세~18세 이하의 경우 2007년 1,341명에서 2012년 8,616명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학령기 자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자녀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국제결혼가정의 학령기 자녀 90.1%, 2011년에는 87%가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다문화가정자녀현황,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표 III-4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현황

(단위 : 명, %)

연도	국제결혼가족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5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2008	18,778	15,804	2,213	761	16,937	14,452	1,885	600
2009	24,745	20,632	2,987	1,126	22,264	18,845	2,519	900
2010	30,040	23,602	4,814	1,624	27,001	21,410	4,204	1,387
2011	36,726	27,256	7,236	2,234	31,940	24,009	6,219	1,622
2009구성비	100.0	83.4	12.1	4.5	90.1	91.3	84.3	79.9
2010구성비	100.0	78.6	16.0	5.4	89.9	90.7	87.3	85.4
2011구성비	100.0	74.2	19.7	6.1	87.0	88.4	85.9	72.6

* 주: 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학생수 대비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다문화가정자녀현황,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북한이탈주민 역시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일부, 2013). 2000년대에 들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2013). 연령별 유형은 20~30대 입국자의 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부, 2013).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0~9세는 999명(4%), 10~19세는 2,835명 (12%), 20~29세는 6,621명 (27%), 30~39세는 총 7,421명(31%), 40~49세는 3,983명 (16%), 그리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3).

탈북청소년 수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에 6~20세 탈북청소년 입국자 수가 22명인데 반해 2011년에는 50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통일부, 2012;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탈북청소년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6세~20세의 학교 재학생 수가 421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143명으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표 III-5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입국자수)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6~20세 (입국자수)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 출처 : 통일부, 2012, 탈북청소년연도별 입국현황,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표 III-6 탈북청소년 연도별 재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학교 재학생수(6-20세)	421	474	602	966	1,14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탈북학생재학현황 통계,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가족구조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우선 황혼이혼과 재혼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혼율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다. 조이혼율(당해 연도 연앙인구 천명당 1년간 발생한 이혼건수)은 1990년 인구 천 명당 1.1명에서 2003년 3.4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 2.3명까지 낮아졌다(통계청, 2012b). 전체 이혼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통계청, 2012b).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0~4년과 5~9년인 비율은 1990년 대비 2011년에 각각 12.6%, 10.1%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9.6%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b).

재혼가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우리나라 이혼재혼 현황자료에 의하면 연간 총재혼건수는 1984년 35,419건에서 1994년 49,133건으로 십년간 약 1만 4천건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 71,369건의 재혼이 발생하였다(통계청, 2013a).

표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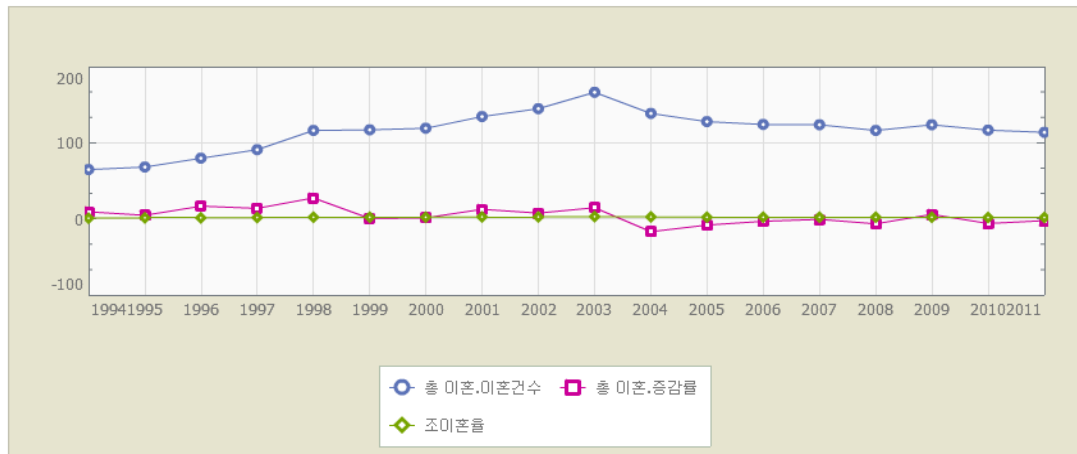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천건,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이혼	이혼건수	65.0	68.3	79.9	91.2	116.3	117.4	119.5	134.6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0
	증감건수	5.7	3.3	11.6	11.3	25.1	1.2	2.0	15.2	10.3	21.7	-27.7	-10.9	-3.5	-0.5	-7.5	7.5	-7.1	-2.9
	증감률	9.6	5.0	17.0	14.1	27.6	1.0	1.7	12.7	7.7	15.0	-16.6	-7.8	-2.7	-0.4	-6.1	6.4	-5.8	-2.2
조이혼율		1.4	1.5	1.7	2.0	2.5	2.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2.3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이혼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580&stts_cd=158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이혼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580&stts_cd=158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그림 III-5】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표 III-8

혼인기간에 따른 이혼인구의 구성 비율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39.5%	29.1%	18.2%	7.9%	5.2%
2011	26.9%	19.0%	15.2%	14.2%	24.8%

* 주 : 1) 미상이 포함된 비율로 전체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2b, 한국의 사회동향 2012(보도자료)에서 재인용.

한부모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일컫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에 의하면 2010년 한부모가구의 형성 원인 중 이혼이 32.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별이 29.7%를 차지하여,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구가 형성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한 아래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부모가구의 수는 2006년 1,426천가구에서 2010년 1,594천가구, 2011년 1,639천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또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8.8%에서 2010년 9.2%, 2011년 9.3%로 증가하였다.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140천가구에서 2011년 189천 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III-9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현황	전체가구	16,289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한부모가구	1,426	1,468	1,509	1,551	1,594	1,639
	저소득한부모가족	140	148	150	171	185	189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66	73	82	94	108	115
	비율	8.8	8.9	9.0	9.1	9.2	9.3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가구주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 즉 여성이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남성 배우자가 없는 가구, 남성 배우자가 경제 부양을 하지 않는 가구, 그리고 미혼 가구 중에서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가 이에 포함된다. 통계청의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비율은 1975년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15.7%(1,787천가구)였던 여성 가구주 비율이 2000년 18.5%로, 그리고 2010년 25.9%(4,497천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여성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보면 사별이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24%), 미혼 (22.3%), 그리고 이혼(16%) 순이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혼여성가구주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혼여성가구주의 경우도 1990년에는 20.4%, 2010년에는 22.3%

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여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0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단위 : 천가구,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여성가구주 가구수		850	1,169	1,501	1,787	2,147	2,653	3,485	4,497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	유배우	24.5	22.3	22.7	17.7	15.7	16.6	17.9	24.0
	사별	59.4	58.2	52.3	56.3	56.1	50.5	44.4	37.7
	이혼	4.3	3.9	4.3	5.6	7.1	11.6	14.4	16.0
	미혼	11.8	15.5	20.6	20.4	21.0	21.4	23.2	22.3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2.8	14.7	15.7	15.7	16.6	18.5	21.9	25.9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핵가족화 현상도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혈연가구는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녀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1990년 9.3%에서 2010년 20.6%로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3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의 비율은 9.3%에서 5.0%로 감소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1990년 58%에서 2010년 49.4%로 감소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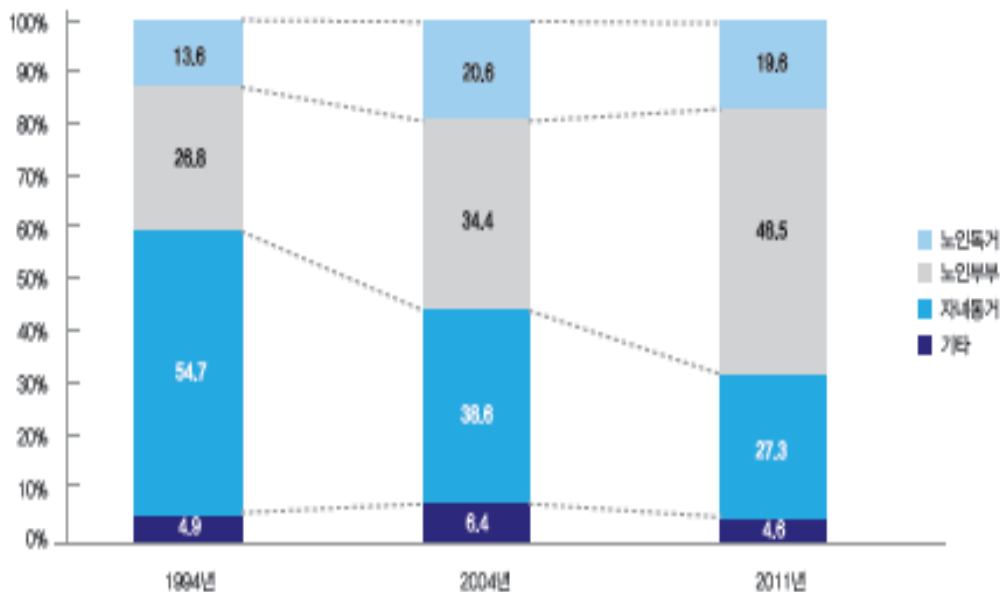
표 III-11 가족형태별 분포

(단위 : 천가구,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혈연가구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핵가족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20.6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49.4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12.3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5.0
기타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11.6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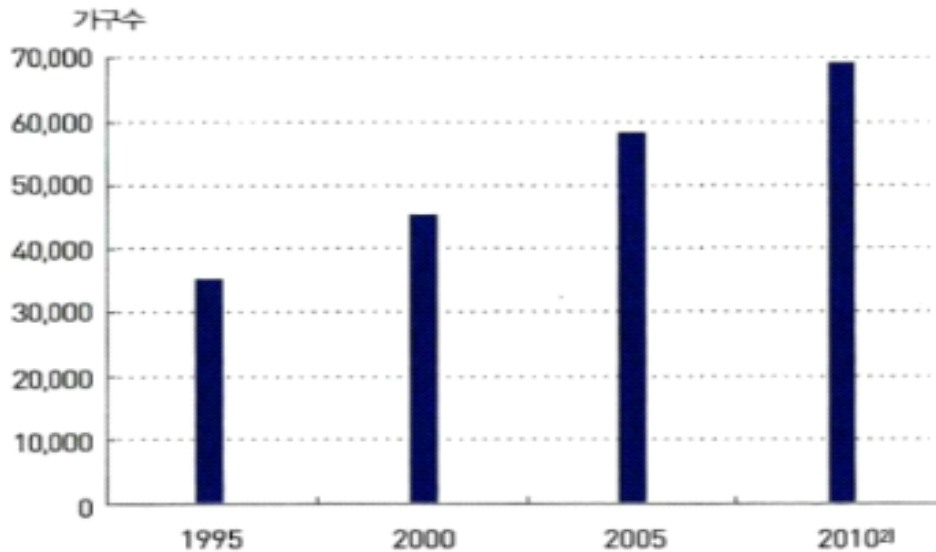
노인가구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노인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 형태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독거 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2012에서 재인용). 노인독거율이 1994년도의 13.6%에서 2011년에는 19.6%로 급증하였고, 노인부부가구 역시 1994년 26.8%에서 2011년 48.5%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2012에서 재인용). 반면 자녀동거율은 1994년 54.7%로 과반수를 웃돌았으나 2004년 38.6%, 2011년 27.3%로 급감하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2012에서 재인용).



* 출처: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2012에서 재인용.

【그림 III-6】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1994년~2011년)

조손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조손가구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로써 통계청은 조손가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손가구의 수는 지난 15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 3만 가구를 조금 웃돌던 조손가구수가 2010년에는 7만여 가구에 다다랐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7; 통계개발원, 2010에서 재인용). 통계청(2011b)에 의하면 아동의 수로 보았을 때 전체 아동의 5.4%가 조손가족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추계 자료임.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7, 장래인구추계, 통계개발원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서 재인용

【그림 Ⅲ-7】 조손가구수 : 1995-2010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청소년의 미래에 있어서 다음으로 제시할 메가트렌드는 고립사회로의 전환이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되어 가는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에 있어서 고립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 전환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부모들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이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1995년에는 7.4%였으나 2000년에는 7.9%로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8.6%, 2010년에는 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모의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구성은 청소년에게 커다란 고독감을 가져다준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쪽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며 이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된다. 특히 학업을 비롯한 일상에서의 대인관계에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별이 한부모가구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 경우 한부모가구의 가족 성원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결속하여 고독감보다는 공동체의식이 더 자리잡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모의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 등으로 인한 이혼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청소년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혼률의 경우에는 1990년 8.9%였지만 2000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1.9%, 2005년이 되면 29.1%, 2010년에는 드디어 32.8%를 넘어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개인주의의 부상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의 가족공동체의식이 양부모가족을 유지시키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면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사회변화의 흐름으로서의 고립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하나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립은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는 기존의 타율적인 1인 가구의 형성으로부터 자율적인 1인 가구의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로 노인층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을 한 후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는 타율적인 1인 가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골드미스, 화려한 싱글 등이라는 신조어 등이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혼자 사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 보다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것이며 이를 내 의지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50세 이상에서는 7-8%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30-34세가 8.5%, 35-39세가 8.7%에 달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5-29세의 경우 가장 높은 9.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2011a, 통계개발원, 2012에서 재인용). 이는 물론 청년실업, 결혼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을 지속적으로 늦추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분위기의

변화는 미래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 가질 생각들과 행동들은 현재의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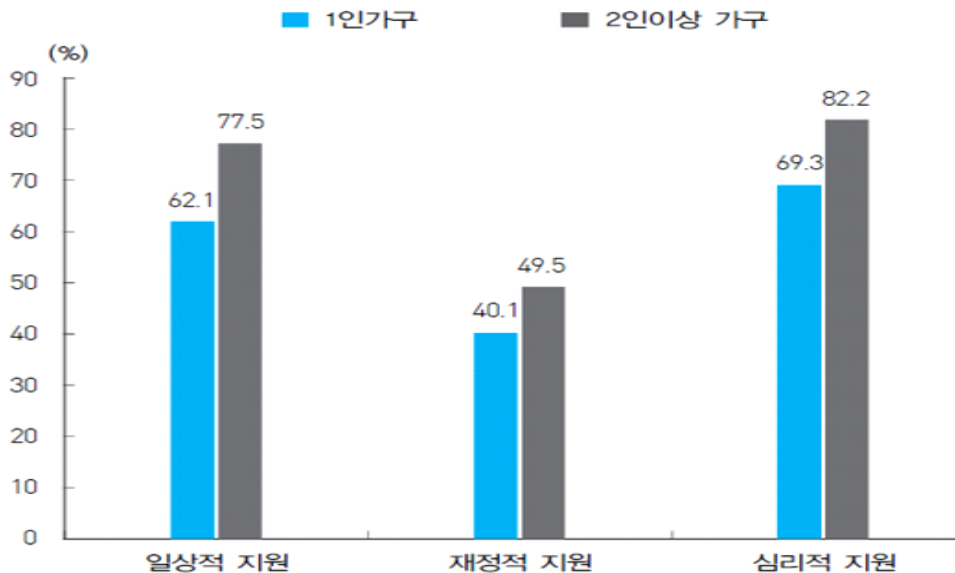
표 III-12 연령별 1인 가구에서의 비율

(단위 : %, %p)

연령	전체가구에서의 비율	1인가구에서의 비율	차이
15-19세	7.0	0.3	-6.8
20-24세	6.8	5.4	-4.4
25-29세	8.7	9.9	1.2
30-34세	9.6	8.5	-1.1
35-39세	10.2	8.7	-1.6
40-44세	10.5	7.4	-3.1
45-49세	10.2	5.8	-4.5
50-54세	10.0	8.4	-1.7
55-59세	7.5	7.3	-0.3
60-64세	5.6	7.4	1.8
65-69세	4.5	7.2	2.7
70-74세	3.9	8.0	4.1
75-79세	2.8	7.6	4.7
80세 이상	2.5	8.4	5.8

* 출처: 통계청, 2011a, 사회조사,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서 재인용.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1인 가구가 물론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숙명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고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개인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하며 사회공동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는 2인 가구에 비해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모두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1인 가구의 고독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심리적 지원의 경우 2인 이상의 가구의 82.2%가 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인가구의 경우에는 13%정도나 낮은 수치인 69.3%만이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가구는 49.5%가 받고 있다고 답하였지만, 1인가구는 40.1%만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통계청, 2011a, 통계개발원, 2012에서 재인용).



*출처 : 통계청, 2011a, 사회조사,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서 재인용.

【그림 Ⅲ -8】 가구원수와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시 경험한다. 이미 대학생들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취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 역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사회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고독감을 준다. 즉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고독감이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기대가 클수록 좌절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그 미래는 너무 먼 이야기로 다가온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의 세대들보다 더욱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더욱 다양한 희망을 갖고 살지만, 그 희망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에 또한 좌절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욱 비극적인 상황이며 정신적인 고독감의 근원이 된다.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청소년의 미래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환경변인은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Maffesoli, 1979). 감정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성과 합리성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은 절대적인 가치로 학교에서 학습되었으며,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은 숨겨져야 하는 것이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모든 것들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을 제어하는 상태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사회적 관계는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그러나 성인들과는 다르게 아직 이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자리잡기 이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성인들에 비해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특히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져왔다. 이 감정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은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제재까지 받게 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이성과 합리성을 개인이 얼마나 흡수하고 활용하는가에 의해 확립되고 있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통제하고 조절하는 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었다. 즉 개인의 인간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단히 사회적인 것이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감정적인 부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감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은폐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구축되었던 규범과 제도들의 절대적인 가치들이 의문시되기 시작하면서 이 규범과 제도의 통제 대상이었던 감정적인 부분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확실한 것은 사회 전체의 감정사회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 전면에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사회에서 인간의 행동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간다. 이성과 합리성이 계획을

중심으로 작동하였다면 감정사회에서는 임의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측될 수 없는, 미리 계획되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들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사실들은 짐멜(Simmel, 1988)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크적인 것이다. 바로크적인 것은 요동치는, 우연히 발생하는, 그 순간의 감정에 따르는 것들로 이루어진다(Simmel, 1988:25).

브레통(Breton, 1992)에 의하면 교육과 경제구조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해왔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감정에 의해 큰 부분이 결정되고, 이 때 창의력과 상상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사회구조가 예측하는 방향과 전혀 딴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Breton, 1992). 오히려 이 때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 된다.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믿음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청소년들의 행동과 사고를 이성과 합리성을 위주로 한 교육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믿음 역시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담아내는 교육방식, 청소년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발현시켜줄 수 있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감정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것 혹은 정확한 것보다 임시적인 것들이 더 나타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통계적으로는 오차가 적은 판단과 예측이 실제 사회현상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감정에 기초한 사회현실과 이성에 기초한 사회통계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적 예측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것들에 의해서 타격을 입게 된다. 인간은 확률적으로 예측되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감정에 지배당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물론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분출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분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 분출은 단순히 제도나 규범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나 규범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분출되고자 하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지극히 높은 수준의 합리성을 추구했던 서구사회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감정분출의 형태가 자주 목격되는 것을 알고 있다. 문명의 발전은 그 이면에 항상 원초적 감정의 분출을 가져온다. 청소년들은 특히 아직 사회화 과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따라서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제도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 통제의 효과이다. 과연 이런 방식의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만약 이러한 통제가 효과적이었다면 과거와 다름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행위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의 이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그렇기에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여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크로와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개인들에게 감정적인 것들은 그들의 행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요소들이다(Lacroix, 1976:112). 감정적인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한 예로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들 수 있다. 집단행동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논리로 무장된 이데올로기도 아니며,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도 아니다. 결국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집단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 의해 비판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적들로 간주하게 된다. 그들에 대해 무한한 중요성을 발산시키면서 평소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격적 행위로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와 합리적인 주장도 여기서는 우선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지역갈등, 북한문제, 보수와 진보의 대립 등에 있어서 숙의의 공론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지배하는 대립의 전선만이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흐름은 그 사회가 나아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 행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스타브 르 봉은 “이론적 방정식에서 벗어난 규칙들(예: 감정의 규칙들)은 대중을 이끄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Gustave Le Bon, 1974:18)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어떤 이에게, 어떤 사물로부터 받는 인상(impression)은 대중의 행동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Gustave Le Bon, 1974).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Maffesoli, 1979; Maffesoli, 1997).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에서 잘 나타난다. 이 일시적 공동체는 일종의 부족(tribe)에 해당한다. 현대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부족성원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부족에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함에 있어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억압과 규제도 받지 않으며, 그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면 아쉽지만 할 수 없다. 어떤 책임을 질 필요도 없이 그냥 나와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이전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익명의 사람들로 바로 전환된다. 그 곳에 남겨두고 온 나의 책임과 임무라는 것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부족을 찾아 떠난다.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순간지향적, 현재지향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만남, 현재지향적인 접속이 만드는 세계는 청소년들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정체성은 특히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크게 결정되는 데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남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자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적극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인간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Maffesoli, 1997).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일시적인 만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부족은 유목적(*nomadique*)이기도 하다(Maffesoli, 1997). 마페졸리적 의미에서의 유목민들(*nomades*)은 자신들의 집합적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속성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유목민들은 서로에게 익명의 존재로 남을 수 있다. 익명의 존재로 남으면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물며, 현재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다(Maffesoli, 1997).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미래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단지 나 혼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다 나은 상태를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변화한다. 거대한 정치로부터 일상의 사회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에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오늘을 희생했어도 밝은 날이 오지 않았음을 청소년세대들이 미리 깨닫고 이제 밝은 날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오늘이 그 자신에게 있어 밝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이제 사회성원들의 에너지는 미래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모아진다. 혹자는 그렇게 된다면 후속세대들의 미래는 어둡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후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이다.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사회의 메가트렌드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청소년들의 미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할 또 하나의 변수는 사회의 신뢰수준이다(김상욱 외, 2009; 국제투명성기구, 2011). 이 신뢰수준은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 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소위 사회자본의 수준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고 낮음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사회자본의 수준은 그 사회성원들의 행동과 의식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자본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어떠한가?

먼저 한국의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주요 집단들에게 보내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보자(김상욱 외, 2009). 2009년의 경우 국민들은 의료계, 학계, 금융기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한 사회의 성원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2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하다(김상욱 외, 2009). 국민들의 표를 그들의 권력으로 변질시켜서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한국사회가 결국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을 위해 작동하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 질 것이라는 회의의식을 미리부터 갖게 한다. 이는 한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벽으로 작동할 것이다.

2003-2009년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김상욱 외, 2009). 사회가 부패해도 그래도 믿을 수 있었던 집단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신뢰도는 2003년 67.7%에서 2009년 65.8%로 감소하였고, 언론사의 경우 2003년의 신뢰도는 61.4%였으나 2009년에는 57.2%로 감소하였다. 시민단체 역시 2003년의 신뢰도는 74.6%였으나 2009년에는 72.1%로 감소하였다(김상욱 외, 2009). 이런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는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청소년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우리 사회 미래의 모습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II-13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2003-2009

	2003/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기업	62.5	72.5	72.7	68.7	69.7
종교계	67.7	67.8	67.1	63.8	65.8
교육계	67.2	69.7	67.8	68.8	71.7
노동조합	55.4	56.9	55.1	57.5	57.0
신문사	61.4	68.5	69.3	60.7	57.2
TV 방송국	69.8	75.5	77.8	75.1	73.4
의료계	75.7	81.8	79.4	80.0	84.7
중앙정부부처	41.8	49.7	51.3	49.6	50.1
지방자치정부	47.9	54.9	56.3	53.8	54.4
국회	19.3	25.3	24.9	26.5	21.1
대법원	72.4	75.6	76.9	72.6	73.6
학계	77.7	81.1	79.7	80.6	83.1
군대	67.4	76.3	78.5	77.6	81.1
금융기관	71.9	91.6	80.0	78.7	82.3
청와대	51.6	56.9	54.6	49.4	51.4
시민운동단체	74.6	73.0	74.0	70.2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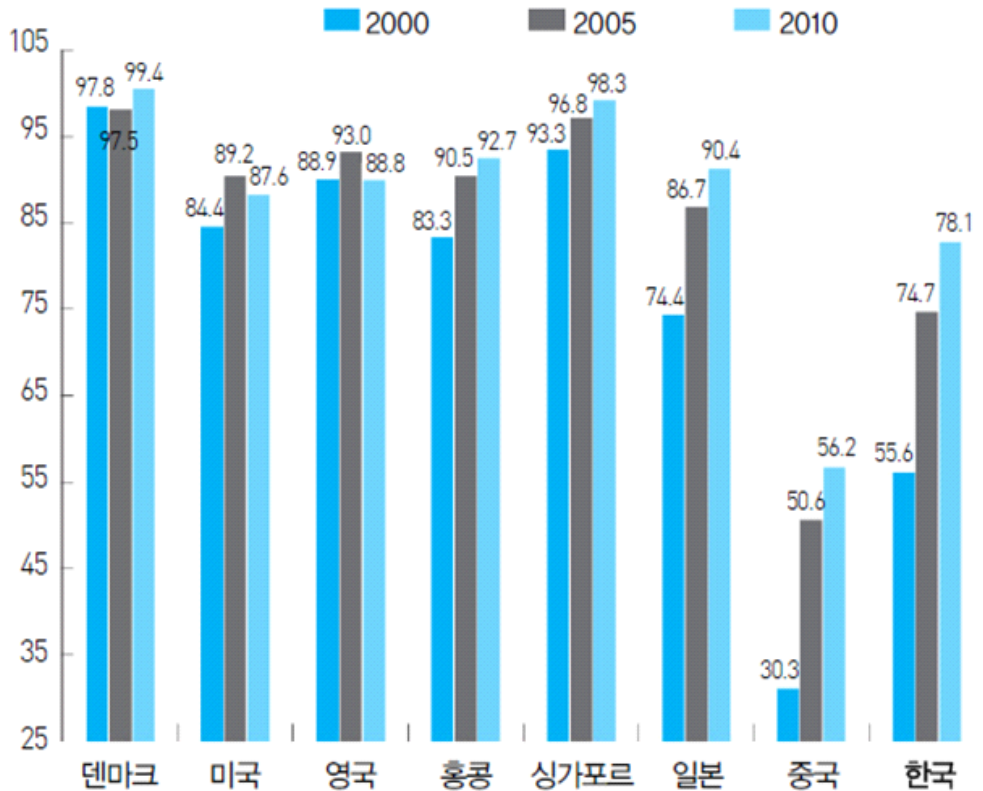
* 주: 귀하는 다음 사회지도층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뢰비율 : 매우신뢰 + 신뢰

* 출처: 김상욱 외.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투명할 때 높아진다. 이때의 투명성은 부정부패가 얼마나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지를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투명성이 폴란드, 브루나이, 도미니카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투명성기구, 2011).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연루 사건들을 볼 때 사실 이 결과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정권말기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부지도층의 부정부패 연루,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공무원들과 기업들간의 어두운 커넥션들이 한국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이 90점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의

경우 78.1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국제투명성기구, 20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숙명적인 것이다. 보다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결과를 배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사회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행동이 이어진다.



*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2011, 투명성지수 백분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홈페이지 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자료

【그림 III -9】 투명성지수 백분위:2000-2010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2000년에는 55.6점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 74.7점, 2010년에는 78.1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국제투명성기구, 2011). 한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에 사회성원들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자본의 미래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인데, 최근 10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의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이 여기서 중요해진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농촌에 대한 거리감의 증가 등은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증가시켰고, 이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이어졌다.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의 급증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이들 다문화가족들의 2세가 한국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공정한 경쟁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1년 139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2년 62만명이었던 수준에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2b).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피부색,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반응, 피부색은 다르지만 언어와 국적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반응이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향후 인구감소와 함께 기업의 노동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외국인근로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수도 지금의 추세라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한국의 사회자본의 미래,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외, 차별 등이 한국의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보자. 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장동료, 이웃, 친구로는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을 전체의 60-80%가 하였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중국동포, 즉 ‘한국인’들에 한해서만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각각 77.8%, 68.9%)(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반면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구성인들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인에게는 자녀의 배우자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이 불과 28.4%, 배우자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불과 25.5%였다(IOM 이민정책연구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이는 다문화사회,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인식은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이식되어서 이들이 향후 한국에서 더욱 뚜렷해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해준다.

표 III-14 한국인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
국민	77.8	68.9	52.8	52.7	56.8	64.0	61.6
동료	76.6	76.6	70.1	73.6	73.1	81.7	79.6
이웃	76.1	76.0	69.8	73.2	73.0	81.1	78.6
친구	67.9	68.2	62.7	68.3	66.8	76.3	74.4
자녀의 배우자	38.9	34.1	28.4	35.3	28.4	40.2	37.6
배우자	36.0	32.2	26.0	31.6	25.5	34.6	34.2

* 주: 각각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물어보는 항목으로 주변사람(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임 신뢰비율 : 매우신뢰 + 신뢰

* 출처: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한국 종합사회조사.

또한 저신뢰사회에서의 불신과 사회통합력의 저하는 다문화갈등뿐만 아니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세대들과 기성세대들과의 다양한 세대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포용하는 수준이 10점 만점에 3.10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소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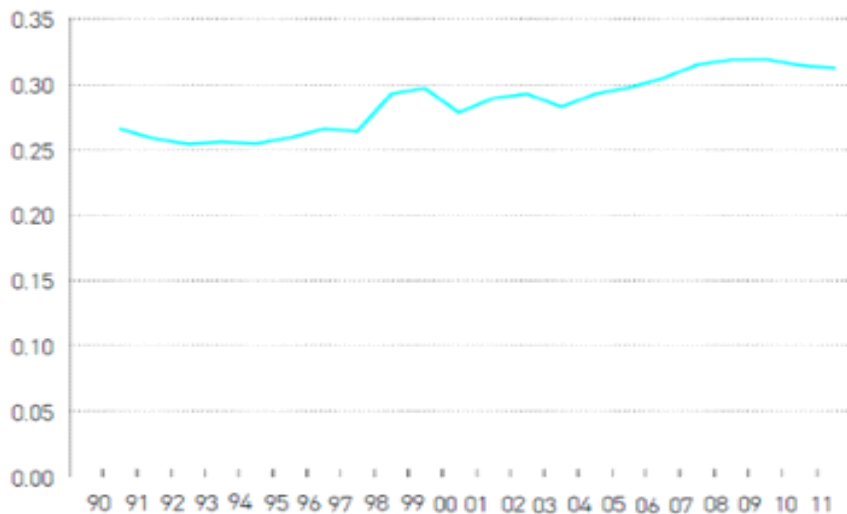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청소년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회구조의 변화 중 중요한 것이 바로 계층양극화로 인한 사회위험의 증가이다. 양극화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벡(Beck, 1992: 87)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되는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킨다.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성원들의 심리에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부의 분배는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외환위기를 거쳐간 1998, 1999년에 0.3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2006년 이후 지니계수가 0.33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통계개발원, 2012에서 재인용).



주: 1) 2인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임

* 출처: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서 재인용.

【그림 III -10】 지니계수의 추이: 1990-2011

문제는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 탐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대다수 사회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동아시아 연구원이 BBC World scan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81%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가 사회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제공된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국들의 평균인 61%보다 거의 20%가 더 높은 수치이다(동아시아연구원, BBC, 2011). 이는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갖는다. 양극화는

부모를 모두 노동시장으로 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자녀까지 노동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노동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제참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자녀의 노동 역시 자아실현, 노동과 돈의 가치 경험의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악화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동현장에 나가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 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청소년들의 미래에 갖는 커다란 위험은 어릴 적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계층론 사회학자인 할바크(Halwachs, 1955)에 의하면 인간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에서 살아도, 그들은 스스로가 다른 인종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동네의 학군은 어떤지, 동네 사람들의 학력수준은 어떤 지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규정짓고,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한다(Halwachs, 1955).

불평등현상을 극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은 언제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창피스러워 하며, 이는 불공정한 경쟁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래서 사회에 평등함이 완연하여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요구한 것이다.

양극화는 계층의 하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계층의 상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끝없는 욕구를 강화시킨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더 나아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구이며, 모방이다. 양극화는 결국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소비행위를 가져온다.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양극화가 오히려 사치재의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행위는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자유감을 가져다준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에 더욱 큰 자유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감의 경험은 마이너스통장, 혹은 대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유감의 경험은 곧이어 개인, 가계의 경제상황의 악화로 나타난다. 주앙(Juan, 1991: 44)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은 '상황에 거리를 두는'(écart a la situation) 행위이며, 이 간격이 클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자유감의 정도가 커진다. 그리고 자유감의 정도가 커질수록, 이를 경험하는 중산층, 하류층의 상황은 악화된다. 이러한 허영적 소비를 잘 설명해주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마페졸리의 '모순성'(contradictoriel)이다(Maffesoli, 1979). 가난한 이가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경제적 조건과 모순되는 행위이다. 즉 모든 이들이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행위이다.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나에게게도 자유감을 경험시켜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행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결국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해보려는 소비행태는 한국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은 많아지지만,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자리잡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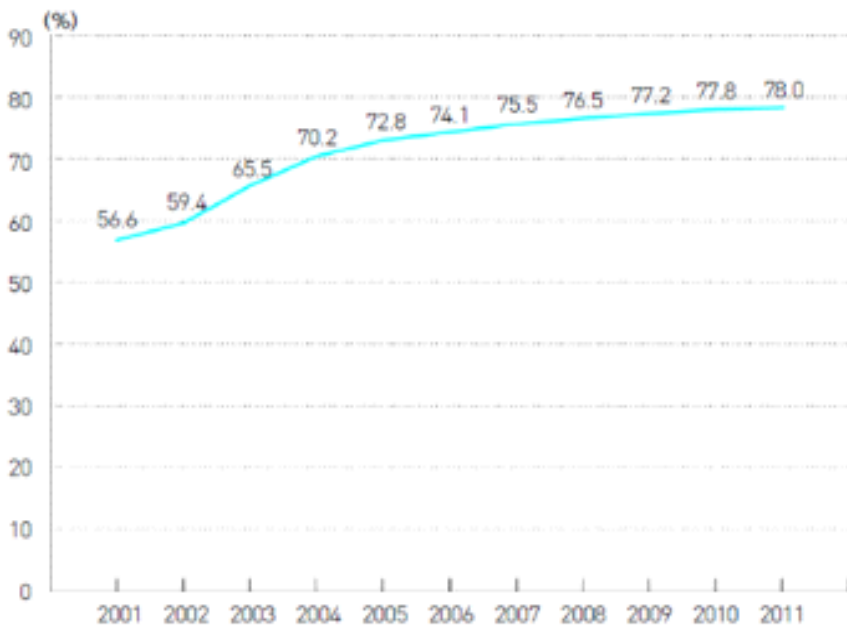
계층의식에서도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3%가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42.4%가 같은 응답을 했는데 2년사이 3%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1a). 전체 계층귀속의식을 보면 상층 1.9%, 중간층 52.8%, 하층 45.3%로 나타나는데, 향후 10년내에 하층귀속 의식비율이 중간층 귀속의식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려했던 호리병 계층구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통계청, 2011a).

이러한 전망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 세대에서 계층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이 2009년에는 전체의 48.1%였는데, 2011년에는 58.7%로 무려 10%나 증가하였다. 특히 자녀들은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지만,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기대조차 회의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 경우에는 다음세대에서는 '계층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답한 이들이 48.4%였고 '할 수 없다'라고 답한 이들이 30.8%였지만,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이 되어 다음세대에서 계층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이들이 42.9%로, '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인 41.7%보다 많았다(통계청, 2011a). 이는 사회의 양극화 고착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기술변수이다. 청소년의 미래의 삶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들 수 있다. 2012년 7월을 시점으로 만 3세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에 달하고 있다. 2010년에는 가구 인터넷 보유율이 96.8%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수준이다(한국인터넷

진흥원, 각 년도, 통계개발원, 2012에서 재인용). 특히 그 속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는데, 속도의 빠름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용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없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이 이들 세대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주: 1) 인터넷 이용자(률): 만 3세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

2) 2004년 조사부터 인터넷에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포함하였고, 2006년 조사부터 조사대상을 만 3세이상 인구로 확대함(2000-2001년: 만 7세 이상 인구, 2002-2005년: 만 6세 이상 인구).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서 재인용.

【그림 Ⅲ-11】 인터넷 이용률의 변화: 2001-2011

2000년대 후반 들어 스마트폰의 도입, 무선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인터넷문화는 또 한번 변화한다. 소위 소셜미디어의 등장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단순히 보자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맺기, 즉 소셜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이다. 한국의 카카오톡, 중국의 QQ 등이 로컬미디어로는 대표적이며, 글로벌 수준에서는 잘 알려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소셜미디어 가입자 비율은 2011년 경우 70%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조사대상 15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중앙일보, 2011년 6월 22일자).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나의 정보, 하나의 의견, 하나의 사진, 하나의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면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한정의 범위로 확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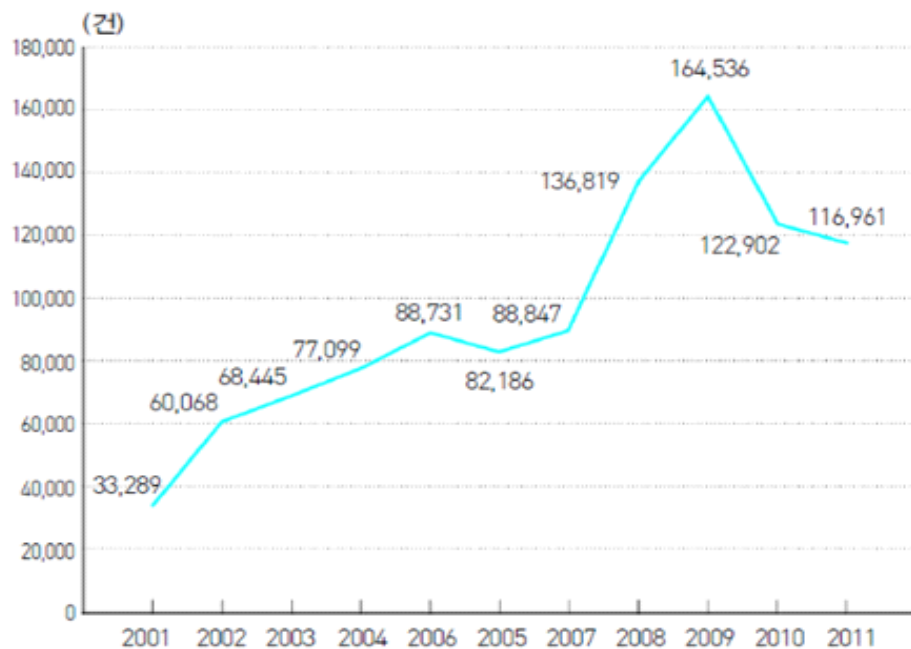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는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른 이용자와 네트워킹 하는 행위(Networking)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위를 하기 보다는 다른 이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보다 큰 효율성을, 보다 큰 만족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쉽지 않았다. 인터넷의 등장은 개인과 다른 개인들을 수평적인 관계의 형태로 연결시키게 하였으며, 네트워킹의 형태로 집단의 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른 이용자와 협력하는 행위(Cooperation)는 근대사회에서 분업화가 가져온 가장 효율적인 행위인 동시에 개인들을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개인을 소외시킨 행위로서 인식되었다. 협력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과 재화의 효율적 생산이었다. 하지만 퍼트남(Putnam, 2000: 132)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목적지향적 협력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들은 효율적 행위를 넘어 감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는 협력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게 한다. 이는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로 하여금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또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도 지닌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 역시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 또한 지니게 된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는 양면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라는 사회자본의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이 부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올리히 벡(Beck, 1992)의 위험사회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은 단지 기술만의 위험성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으로의 의미를 지닌다(Beck, 1992).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즉 위험성)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기술이 사회에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중독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금융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는 2001년 33,289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16,961건으로 4배이상 증가하였다(경찰청, 각년도, 사이버범죄통계, 통계개발원, 2012에서 재인용).



* 출처 : 경찰청, 각년도, 사이버범죄통계,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서 재인용.

【그림 III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001-2011

2. 미시환경 트렌드

앞에서는 향후 미래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전체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메가트렌드들에 대한 분석에 이어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 등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미시환경영역별로 어떠한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 등 각 미시환경 영역별로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위주로 분석을 제시하였다.

1) 가족환경

향후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가족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가족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과 201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족의 비율이 2005년에는 67.2%에서 5년 후인 2010년에는 79.6%로 상승하였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은기수, 이명진, 김영란, 주재선, 송치선, 2005; 조희금, 송혜림, 박정윤, 권태희, 김경화, 김주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 정민자, 2010). 또한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2005년에는 39.4%, 2010년에는 39.6%의 응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장혜경 외, 2005; 조희금 외, 2010). 신체적인 고단함의 경우 2005년에는 21.2%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17.8%로 줄었다. 반면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2005년에 12.9%였으나 2010년에는 22.3%로 증가하여 노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5년 사이 약 두 배 남짓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장혜경 외, 2005; 조희금 외, 2010). 이 외, 부부갈등과 형제자매 갈등이 증가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5년~2010년 사이에 소폭 증가하였다(장혜경 외, 2005; 조희금 외, 2010). 노인 부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미래 청소년들에게 윗세대 부양 및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및 조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이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화로 인해 독특한 노인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세대간 가족 관계의 새로운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부양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대 간 관계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독특한 노인문화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버타운 및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생활문화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 부모 및 조부모의 역할 재정립 및 가족관계 상호작용의 재정립이 미래 가족의 새로운 과제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미래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다양한 구조의 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규범적으로 여겨졌던 가족의 필수조건 및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미래 청소년들의 인식이 보다 더 유연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 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에 가장 높은 가구 비율을 차지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및 삼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녀 없이 부부로만 이루어진 무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재혼 가구, 조손 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그동안 ‘비규범적’인 가족의 형태로 여겨져 소외되고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의 필요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 구조가, 혹은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 ‘비정상’ 혹은 ‘비규범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나 삶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현상이 팽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가족의 여러가지 기능, 즉 다음세대의 생산 및 양육과 돌봄 등에 대한 인식과 가족형성에 결혼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점차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양부모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이 진부하게 간주되는 하위문화(subculture)가 현재보다 더 확산되거나 아예 주류(mainstream)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12c)의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결혼을 원하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2012년 43.4%에 불과하다. 또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012년 45.9%이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2012년 22.4%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2c).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미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필수 조건 및 그 경계가 지금보다는 더 모호해 지거나 확대되고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정과 조손가구의 증가로 인한 미래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와 조손가구 증가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미래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규모의 감소 및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 및 조손가구의 증가는 미래 청소년들이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확률이 현재 청소년들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가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구주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이는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가구빈곤 위기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시한 조손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부모의 나이가 평균 72.6세(조부 73.1세, 조모 72.5세)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0a). 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조부모의 70%가 건강상의 문제 및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a).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를 손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 2010a). 이는 손자녀의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의 대부분이 이상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손가구 및 한부모 여성가구주 가구의 미래 청소년들은 상대적 빈곤감 및 특히 교육이나 진로 관련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조손가구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손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53.7%, 고등학생 54.2% 만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여성가족부, 2010a). 이는 현재 우리나라 상급학교 진학률이 중학생 99.6%, 고등학생이 81.9%(통계청, 2011c)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난다. 중학생의 10.8%, 고등학생의 18.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0a) 상당수가 상급학교 진학 대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양극화 현상이 현재보다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부모 여성가구주 및 조손 가구에 대한 정책적 경제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래 청소년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의 가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출 등 일탈 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양극화 등과 관련하여 하위계층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쉽게 빠진다. 양극화로 인해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가정빈곤,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출과 일탈 충동을 제어해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일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부와 자녀, 노인부부,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비중 증가 및 확대가족 비율의 감소로 가족내 돌봄기능의 약화가 예상되며 부모 부양 및 양육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세대 확대가족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 추세는 앞으로 가시화 될 가족내 돌봄의 양상 변화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 확대가족의 맥락에서 노부모 돌봄과 부양이 당연시되어 왔던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돌봄의 양상은 점점 줄어들고 주말을 이용한 단기적인 방문 등의 일회성 성격을 띤 돌봄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래 청소년들의 돌봄에 대한 의식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각년도 사회조사결과를 토대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3년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모 부양에 대해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인구가 2002년 67.1%에서 2012년 35.6%로 10년간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2년 20.5%에서 50.0%로 크게 상승하였고 정부와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1.6%에서 3.6%로 증가하는 등 부모 부양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가 급변하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에서 재인용). 이는 돌봄, 특히 노부모 돌봄의 개념이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사적인(private)인 영역이 아니며, 의무적인 관습이 더 이상 아닌, 정부와 사회가 함께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영역으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구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구나 빈곤 가구 및 조손가구의 경우 자녀 돌봄과 양육의 기능이 더 이상 가족만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야 가능해 지는 복합적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가구의 자녀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미래 청소년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가족이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화되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기능이 외부와 공유되는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 사회	기타
2002	100.0	10.6	67.1	20.5	1.6	0.2
2006	100.0	7.6	58.9	31.3	2.1	0.1
2008	100.0	11.4	40.8	44.6	3.2	0.0
2010	100.0	11.3	40.8	45.2	2.7	0.0
2012	100.0	10.9	35.6	50.0	3.6	—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2013청소년통계(보도자료)에서 재인용.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5세이상 인구 중 부모 생활비를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2012년 48.9%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c). 젊은 층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가 13~29세의 경우 81.3%, 30~39세의 경우 66.2%, 40~49세의 경우 42.3%가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12c).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가족의 핵가족화는 자칫 잘못하면 미래 청소년 인구의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극도로 개인주의화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에 있어서

가족내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과 같은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가족이 아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자족(self-sufficiency)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에 자족은 부모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16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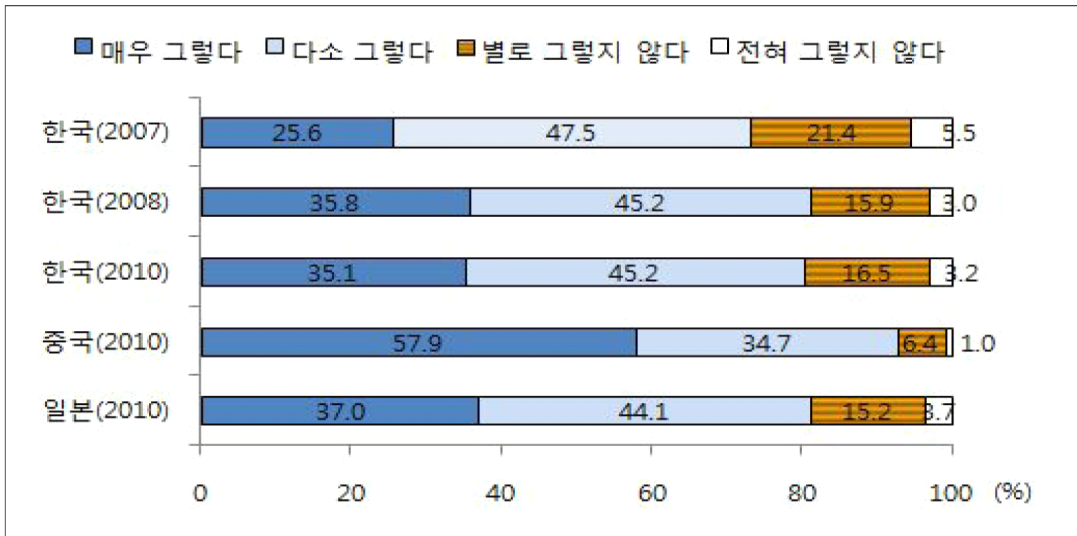
	계	자녀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자녀	부모 스스로 해결	기타
2008년	100.0	52.9	14.6	10.5	1.9	25.9	46.6	0.5
2010년	100.0	51.6	12.4	11.3	1.8	26.1	48.0	0.3
2012년	100.0	50.7	11.2	9.7	2.3	27.6	48.9	0.4
가구주 연령								
13 ~ 29세	100.0	18.5	3.5	3.2	1.7	10.1	81.3	0.2
30 ~ 39세	100.0	33.6	6.2	6.3	2.1	19.0	66.2	0.2
40 ~ 49세	100.0	57.4	11.0	11.1	1.8	33.5	42.3	0.3
50 ~ 59세	100.0	74.4	19.2	14.2	3.3	37.8	25.0	0.6
60세 이상	100.0	79.5	25.8	16.0	3.6	34.2	18.7	1.8

* 출처 : 통계청, 2012c, 2012년 사회조사결과(보도자료).

일곱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가족내 청소년의 고립감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의 대화이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부모들이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 고립감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다. 청소년들이 학교, 그리고 사교육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부모들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 의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부모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무려 34.3%에 달하였다. 월 1-3회도 32.8%였지만, 월 1-3회의 대화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비슷하다고 봐야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12a).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3국 중에서 '나의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이 가장 낮았다. 중국이 92.6%인 반면, 한국은 80.3%였다(여성가족부, 2010b).



* 출처: 여성가족부, 2010b.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그림 III-13】 가족과의 생활에 대한 청소년들 만족도 한국, 중국, 일본 비교

2) 또래환경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또래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메가트렌드들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등과 관련하여 또래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점차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앞으로 시급할 것으로 예견된다.

통계청(2011b)은 국제이주로 인한 외국인 인구 유입률이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20년동안 증가해온 외국인들의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미래 청소년들이 이들을 학교에서 또래로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며, 또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육자나 리더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친밀감은 다문화 수용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석원, 정진철, 2012). 이는 곧 반대로 이러한 친밀감이 낮을 때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 역시 낮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도가 낮을 경우 이러한 배경을 가진 또래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편견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다문화 수용도는 국제화를 통해 앞으로 더욱 다문화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기위해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가 2009년에 36개 국가의 중학교 2학년들 140,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ES) 결과에 의하면(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09), 한국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 부분에서 35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향상시킴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미래 청소년들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 이웃,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의 보편화를 들 수 있는데, 정석원과 정진철(2012)은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도 향상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의 또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미래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는 현재적 필요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즉, 자신들의 사회세계를 구축하는 성격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임희진 외, 2008; 최인재 외, 2011; 김택호, 김인규, 1999; 김현철, 2006),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민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2011d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대안 부족을 감지하는 정도가 청소년들 사이에 더 높아지고 이에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로 인해 고민할 마음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넓게는 대인관계, 좁게는 또래와의 애착관계보다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자아실현에 관련된 것들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표 III-17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영역

	외모/ 건강	가정 환경	용돈 부족	공부 (성적, 적성)	직업	친구 (우정)	이성 교제	학교 폭력	흡연, 음주	기타	고민 없음
〈2002〉											
15~24세	19.7	8.9	5.4	39.8	6.9	3.3	7.8	1.9	1.8	4.2	0.3
15~19세	18.4	6.8	5.7	48.9	5.2	3.3	5.5	1.2	1.5	3.1	0.4
20~24세	21.0	10.9	5.0	30.8	8.6	3.3	10.2	2.6	2.1	5.3	0.2
〈2010〉											
15~24세	16.4	9.1	4.3	38.6	22.9	1.6	1.7	0.1	0.2	0.7	4.5
15~19세	16.6	6.8	4.1	55.3	10.2	2.2	1.0	0.2	0.1	0.6	3.0
20~24세	16.3	11.8	4.6	18.1	38.5	0.8	2.4	0.1	0.2	0.8	6.4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2011d, 2011청소년통계에서 재인용.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3년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은 2012년 ‘친구와 동료’가 46.6%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14.1% 감소한 결과이다(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에서 재인용). 반면에 ‘스스로 해결’과 ‘부모’는 각각 6.5%, 9.6% 증가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 또래 관계의 성격이 정서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애착의 대상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대인관계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자아실현에 관련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8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단위 : %)

	계	부모 ¹⁾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선후배	스승	스스로 해결	기타 ²⁾
			아버지	어머니						
2002	100.0	12.1	—	—	6.3	60.7	3.7	0.6	15.5	1.1
2006	100.0	18.9	3.0	15.9	5.9	52.6	2.5	1.1	18.1	1.0
2008	100.0	21.9	3.4	18.5	4.8	53.6	3.5	1.2	13.9	1.1
2010	100.0	20.7	2.9	17.8	6.2	51.1	2.6	1.4	16.9	1.1
2012	100.0	21.7	3.2	18.5	5.2	46.6	2.0	1.3	22.0	1.2

* 주: 1) 2002년 조사시 부모 항목으로 조사

2) 청소년 상담가, 성직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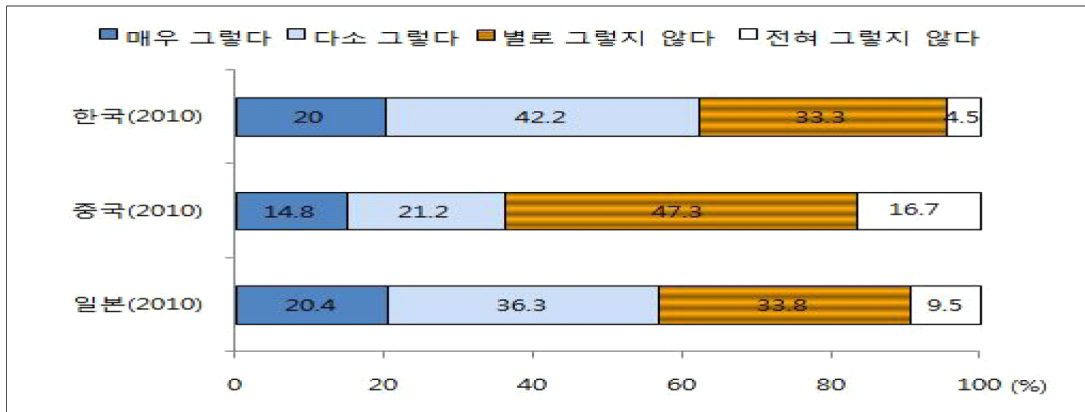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2013청소년통계(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이러한 해석은 2005년 한국·일본·중국·미국의 고교생 7,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김현철, 2006)의 결과도 뒷받침해 준다. 이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장래 진로(66%)를 관심분야로 꼽았지만 미국 학생들은 친구관계(64%)를, 일본 학생들은 대중문화(62%)를 들었다(김현철, 2006). 또한 한국학생들은 78%가 '희망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장 크게 소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국은 76%, 미국은 54%, 일본은 29%에 그쳤다(김현철,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학입학에 대한 관심이 미국이나 일본 청소년들 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서 제시한 전망과 그 논지를 같이 한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 중 5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77.9%로 나타나 중국(65.9%), 일본(41.1%), 미국(38.5%) 보다 높았다(김현철, 2006).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가 갖는 의미에 있어서 소수의 친구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자신들의 사회세계 구축을 더 우선시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또래간 집단따돌림(왕따) 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고립감에서 공부, 취업 이외에 중요한 요인은 친구관계이다. 한국의 학교문제에서 소위 왕따문제는 이미 명백한 현실이 되었다. 폭력에 비해 통제가 어렵고, 청소년들 사이에

은밀하기 이루어지는 따돌림 행위는 피해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여성가족부(2010b)의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이 62.2%로 일본의 56.7%, 중국의 36%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b).



* 출처: 여성가족부, 2010b,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그림 Ⅲ-14】 학교에서 집단따돌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청소년들 예측 한국, 중국, 일본 비교

3) 학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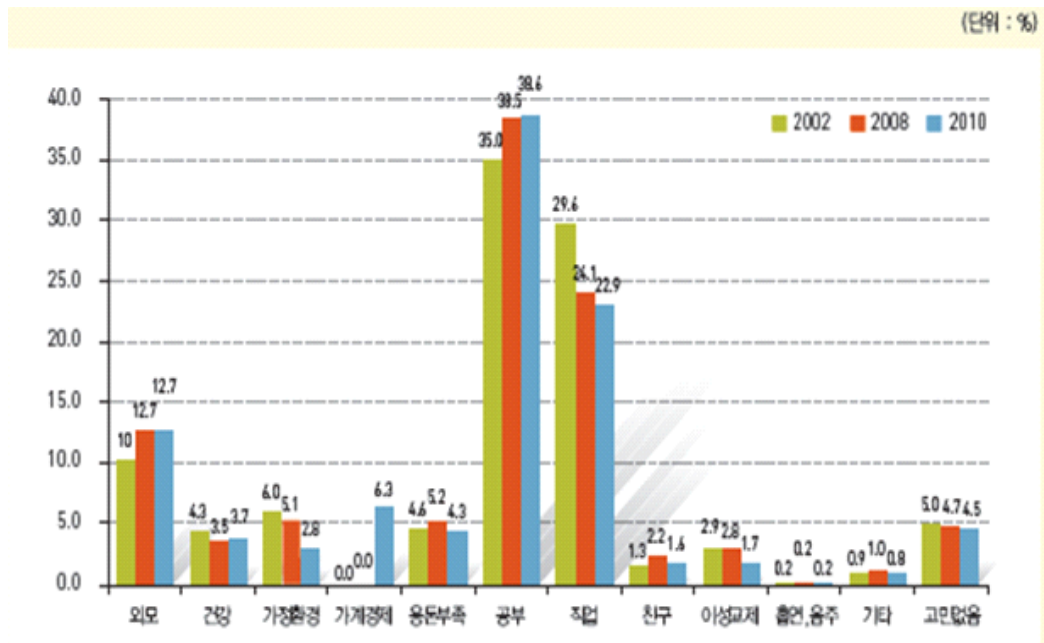
향후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학교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과 사회적 역량 교육의 강화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의 증가 등 학교 교육환경의 질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해야 할 상대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월등하게 완화되고 전공이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희망하는 분야로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입시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가족이 자녀에게 최대한의 물질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더 수월해지고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이 중심의 과도한 부모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녀의 자주성과 독립심 발달을 방해하고, 자녀의 부모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이타심과 배려심 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조사(통계청, 2011a,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는 공부와 직업이 압도적이었다. 고민거리가 공부라는 비율은 2002년 35.0%에서 2010년 39.6%로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반면 고민거리가 직업이라는 비율은 2002년 29.6%에서 2010년 22.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고민거리에 비해서 직업은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10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한국의 청소년들은 엄청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대학입시를 위해서 올인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적 스트레스, 사교육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며,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다. 부모의존성이 증가하고, 자립심, 이타심 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성 교육(character education)과 사회적 역량 발달(social capacity/competency development)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수 감소로 인한 아이 중심의 부모 지원이 보다 더 수월해 지고 가능해 짐에 따라 인성 교육이나 사회적 역량 발달 등의 사회화 및 자녀 교육의 역할을 가정이 보다 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더욱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는 경제수준의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결핍의 증가로 이어져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이나 불평등 및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자녀교육 지원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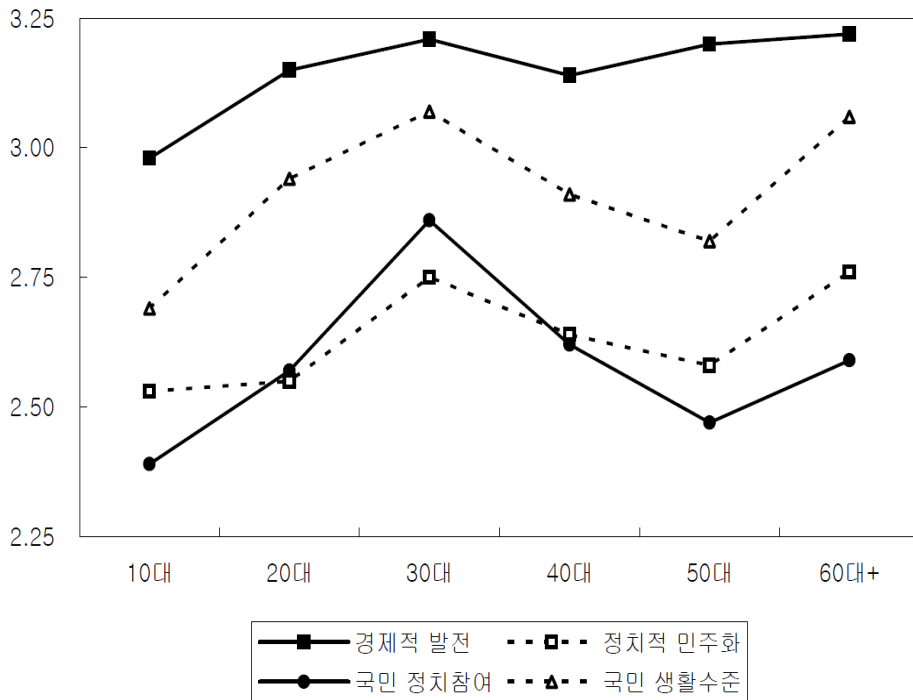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2011a, 사회조사,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그림 III-15】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둘째,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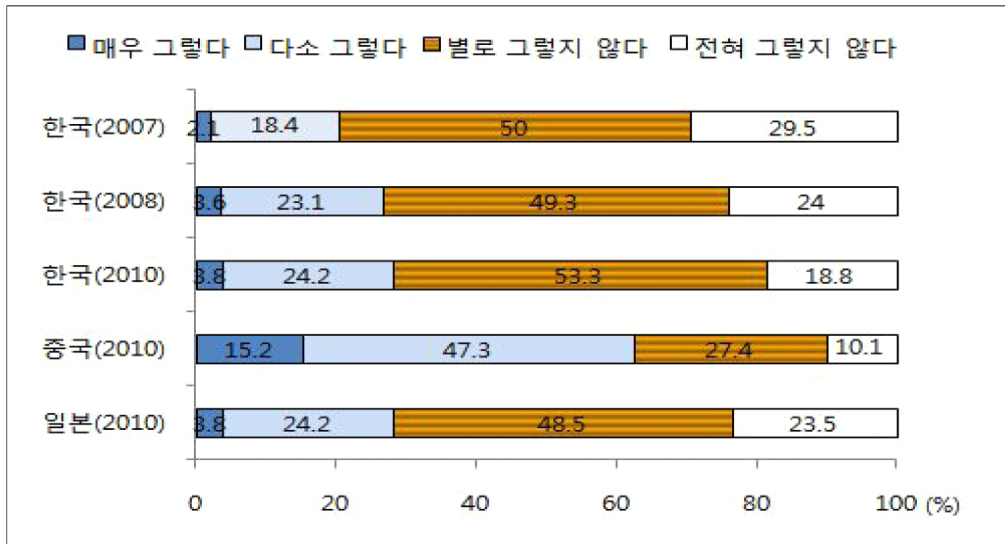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세대가 그 사회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다른 사회성원들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는 이러한 불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종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세대 중에서 청소년 세대가 한국사회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민주화, 국민정치참여, 경제발전수준, 국민생활수준 모두에 있어서 10대 청소년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특히 국민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인 약 2.30/5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10대들이 정부, 기성세대,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보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종원, 2009).



* 출처: 이종원,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그림 III-16】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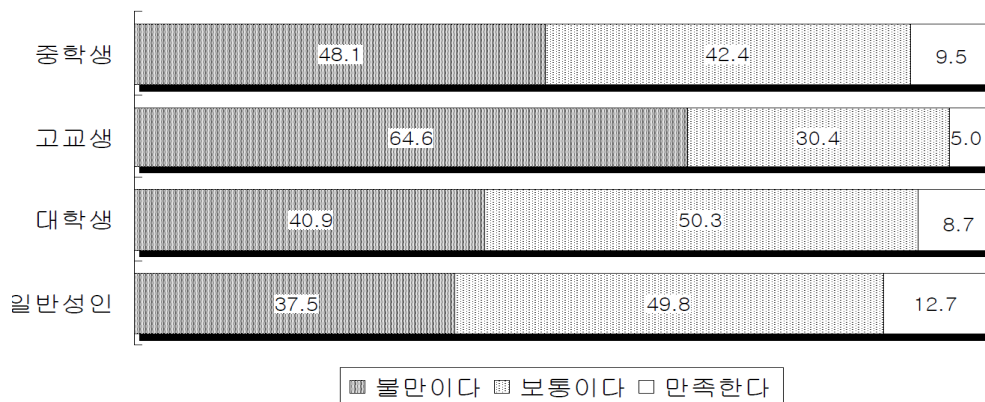
한·중·일 국가간 비교에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여성가족부(2010b)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청소년들의 62.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한국청소년들이 사회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b).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가장 실감하는 것은 바로 이 교육부분일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승진, 사회활동 등에 있어서 사회의 공정성을 경험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학업활동에서 이를 경험한다. 강북의 청소년들이 강남의 청소년들에 대해 느끼는 박탈감, 지방의 청소년들이 서울의 청소년들에 대해 느끼는 박탈감 등이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10b.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그림 Ⅲ-17】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의견 비교

특히 학업성적에 가장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불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종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교생 중 64.6%가 '불만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중학생(48.1%), 대학생(40.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이종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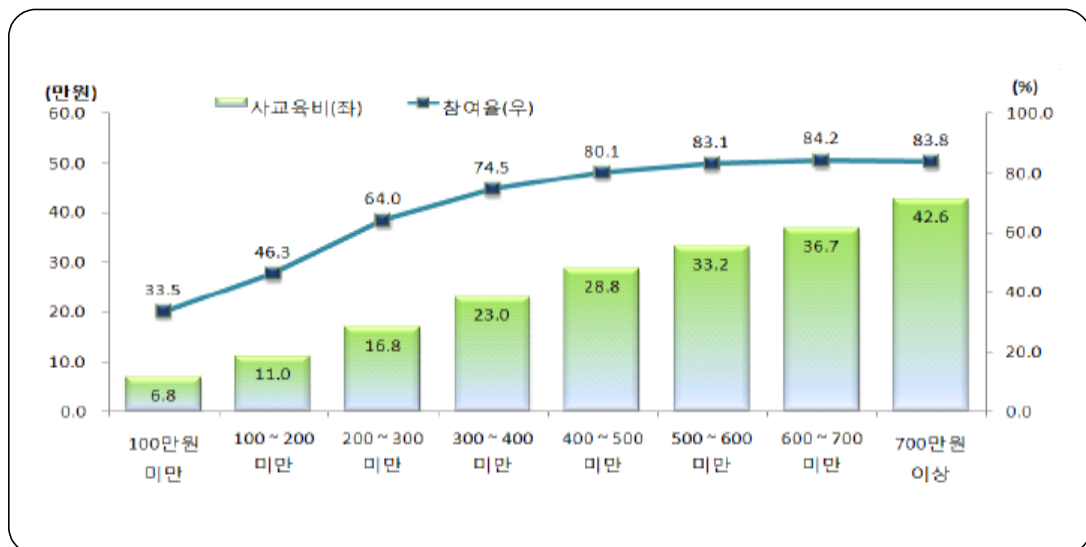


*출처: 이종원,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그림 Ⅲ-18】 한국청소년들의 학령별 사회현실 만족도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가가 여전히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현실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그 사교육비 지출의 질과 양은 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가진 자들이 교육을 통한 기회의 독점으로 자신들의 계층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해 자신들의 가난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2013b)의 자료에 의하면, 초, 중, 고교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무려 69.4%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3만 6천원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3b).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6천원이었지만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만8천원에 불과했다(통계청, 2013b). 2009년부터 소득 7백만원 이상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를 보면 2009년 8.43배, 2010년 7.68배, 2011년 6.47배, 2012년 6.26배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비율이 대단히 높아빈곤으로 인한 계층세습화가 청소년들의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통계청, 2013b; 통계청, 각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이는 학업에서의 뒤처짐과 좌절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통계청, 2013b,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그림 III-19】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보다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러한 교육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더욱 불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이가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에 커다란 원인임이 잘 나타나 있다. 교육기회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 형편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교육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형편 때문이라고 답한 이가 46-48% 정도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60%를 넘어서고 있다(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계층양극화가 본격화된 시점이 2000년대 중반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 III-19 교육기회의 충족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1990-2008 (단위 : %)

	1990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충족	17.3	19.6	20.6	24.5	31.5	39.9
미충족	82.7	80.4	79.4	75.5	68.5	60.1
미충족이유 : 경제적형편	47.9	46.8	47.5	63.5	66.5	72.2

* 출처: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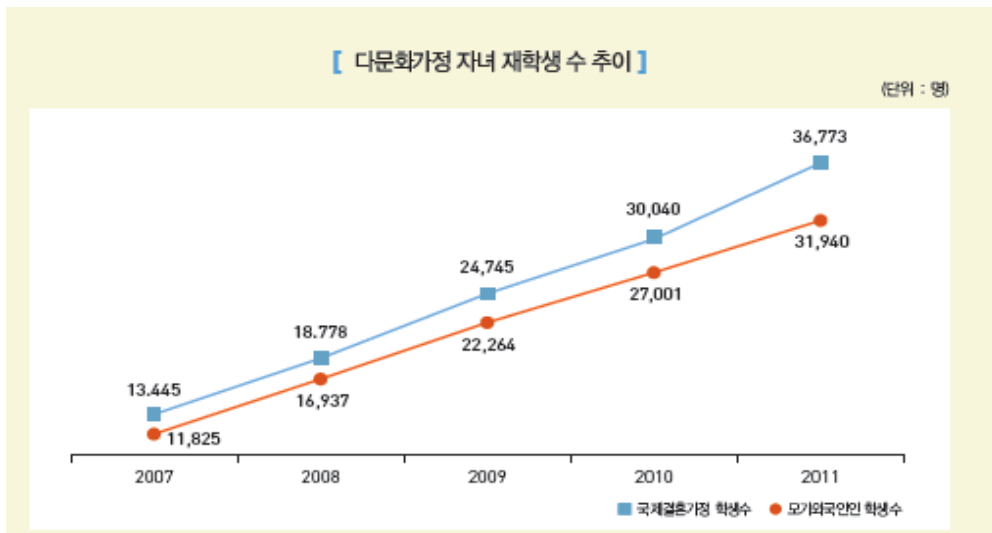
또한 빈곤의 세습화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에서 지적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그 이유이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하위층의 청소년들에게 사회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들에게 자라나는 시기에 이미 좌절감과 분노를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문제와 교육문제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 청소년세대들의 사회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신뢰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다. 다문화사회에서 핵심은 다문화가구의 자녀들이 학생이 되고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차별의 위험’이다. 글로벌화가 되고

있지만, 서구중심의 글로벌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그렇기에 비서구지역의 문화, 피부, 언어에 대해 이를 주변화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2007년 13,445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학생수는 불과 4년 후인 2011년에 36,77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다문화가정자녀현황,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만약 이렇게 증가할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당하게 되고, 소외를 경험하며, 사회진출에 있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갖게 될 불신과 불만은 엄청난 수준일 것이다. 한국 청소년문제에 있어 사회자본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미래에 대처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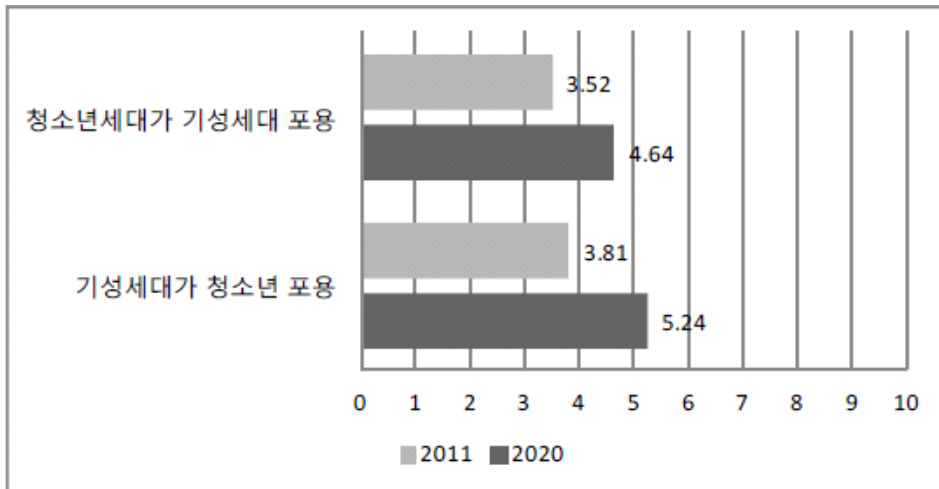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다문화가정자녀현황,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그림 III-20】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수 추이(단위: 명)

또한 기획재정부(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게 갖는 불신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수행한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를 포용하는 수준은 10점 만점에 3.52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인 2020년을 예측하는 조사결과에서도 중간점수인 5점에도 미치지 못한 4.64 정도에 그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도 심각한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기획재정부, 2011). 향후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청소년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점이 여기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지, 그러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이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논의해야하는 것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2011.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그림 Ⅲ-21】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포용성 조사

4) 매체환경

향후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매체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매체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차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 그 등장 이후로 전체 사회성원들, 특히 태어나서부터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자라는 청소년세대들의 행동과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청소년세대들에게 공기와 같은 의미로 기능하고 있다. 이창호 외(2012)의 조사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를 경험한 청소년은 조사대상 1,415명 중 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외, 2012). 특히 카카오톡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친구관계맺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셜미디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역시 청소년세대들을 중심으로 자기표현, 관계유지, 공유의 기능을 하고 있다. 향후 스마트폰의 청소년 세대들에의 보급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에 소셜미디어의 이용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미래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즉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하는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과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지, 어디에 있는 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지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에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업경쟁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증대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기성세대들에게 공유는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청소년세대들에게는 ‘취향을 공유하는 즐거움’으로 그 행위는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공유된다. 청소년세대들의 공유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공유하는가라기 보다는 공유자체의 행위다. 공유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느낌이 소외의 위험에 놓여 있는 청소년세대들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가져다준다.

물론 소소한 이야기들만이 공유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요한 이슈들과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문제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 정부 초기에 미국산수입 쇠고기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운동의 핵심적 주체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사실들도 공유하면서’ 운동의 폭과 과장이

커지는 데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경우 레비의 ‘집단지성’의 개념이 적절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즉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문제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자 개입하는 개인들이 있으며, 이들이 사실을 관찰하는데 있어 집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Levy, 1994, 권수경 역,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 참여도는 오히려 성인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종원(2009)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정치문제와 관련된 참여활동 경험에 있어서 대학생, 일반성인에 비해 중고교생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종원, 2009). 물론 이에 대한 해석으로 30대는 취업 후 직장생활에 몰두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거나 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이 적어도 사회정치문제를 도외시키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청소년들의 문화는 소위 하위문화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화간의 위계현상을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화시키고 있다. 하위문화라고 하면 전체 사회가 주류문화라고 설정한 부분이 있고, 이 주류문화에 비해 문화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더 이상 하위문화가 아니라 기존의 주류문화를 압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적극적으로 그 하위문화를 사회 전체 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평판’에 대해 그들만의 ‘집단적인 평판’을 던지면서 문화간의 위계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 과거에서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소수의 전문가들(교수 등)의 문화적 평가가 가치가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집단적 평판이 이제 그 문화적 평가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문화적 평가를 압도하고 있다.

셋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성에 기초한 행위를 벗어난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수직적 권위에 기초한 네트워크나 과거의 학연, 지연과 같은 지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참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사회로의 변환은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의 이행의 주체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집약시키고 표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탈근대로의 사회변환을 기술-사회-인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마페졸리(Maffesoli, 1997)에 의하면, 이성과 합리성의 포화상태를 넘어서려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성과 합리성의 결집체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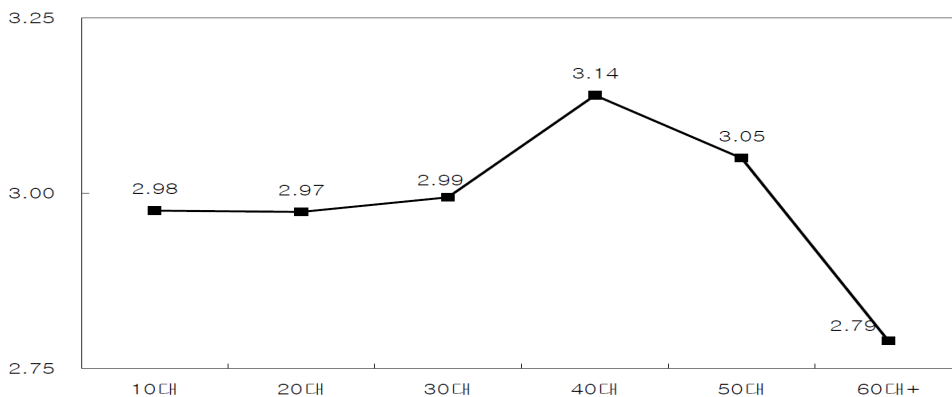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감정표출은 공동체결집을 통해서 나타난다. 제도적, 규범적 제약이 성인들에 비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감정표출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이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 공동체는 과거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속적인 소속감’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하며 감정을 표출하는 데, 이 공동체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특성을 지닌다. 마페줄리(1997: 25)에 의하면 이는 탈근대적 부족(postmodern tribe)이다.

청소년들은 이 탈근대적 부족들에 속하면서 행동을 할 때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했던 가치들, 포디즘으로 대표되었던 가치들, 즉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거부한다. 이 가치들에 의해서는 제어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즉흥적인 감정표출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플래쉬몹같은 행동이 그 사례 중 하나가 된다. 플래쉬몹은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성원들간의 지속적인 연계는 의미가 없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감정을 함께 표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플래쉬몹이 있기 이전 인터넷 공간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계획이기보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열려있는 계획이다. 근대의 시각으로 보면 시간낭비, 비효율적,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이 일시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히 청소년 세대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공동체 안에서의 즉흥적 감정표출’이라는 청소년세대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향후 청소년관련 문화정책, 참여정책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일시적 공동체에서의 즉흥적 감정표출은 청소년세대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이어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Castells, 1988).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들은 강한 노드들이 있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노드들을 중심으로 하위 노드들이 얹혀 있는 형태였다. 시민단체들이 그랬으며, 문화운동집단들도 그러했으며, 팬집단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기존의 힘과 권위에 대해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그 존재감을 뚜렷히 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의 노드에 거대한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텔스에 의하면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만 미래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Castells, 1988).

즉 청소년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은 미래 한국사회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다. 수평적 네트워크에서는 외부의 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의 힘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 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다. 성원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면 수평적 네트워크는 그 효과가 크게 감소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아노미상태로 빠르게 변질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그 안의 소수의 극단적 행위로 인해 종종 아노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은 이러한 감성적 연대에 기초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만의 참여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처럼 거대한 군중집회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갖는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혹자는 청소년들이 점점 탈정치화되고 있다고 한다. 치열한 학업경쟁시스템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참여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커다란 사회혁명이 아닌 일상에서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에 있어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종원(2009)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20대, 30대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종원, 2009). 관심을 넘어 참여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다. 독도문제 등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세대는 청소년들이다.



* 출처: 이종원,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그림 III-22】 세대별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봐야할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 참여에 있어서 이념, 이데올로기, 정치보다는 연대, 신뢰, 감정의 공유가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고립사회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수 없는 개인들은 점점 고립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그 고립을 연대—일시적일 수도 있지만—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세대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마페졸리(Maffesoli, 1997)는 이러한 모습이 ‘감정적 융합’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로 고립화되어가는 개인중심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감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신처(niche)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은신처에서 청소년이 다른 이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다른 이로부터 감정을 전달받는, 즉 감정의 전염이 진행된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정체성이 가장 가치있는 것이냐에 대해 계속 교육받아온 청소년들이 이 은신처에서 자신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발현하기도 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자신과 다른 이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면서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정체성이기도 하다.

넷째,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먼저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효율성으로 무장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어릴 적부터 사용하면서 이들 세대에는 시간은 항상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느린 것은 불안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문제는 계속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들의 행복감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 전체로 보아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백의 중요함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일상화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부족하게 될 수 있다.

또 하나 부정적인 현상은 의견쏠림현상이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에 대해 다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면, 그 의견에 대해 자신 스스로 판단하여 평가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다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학자 르봉(Le Bon: 1974: 90)이 우중론에서 비판한 감정적, 배타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향이기도 하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갖는 실시간 확산의 힘은

이러한 의견충돌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

다른 부정적인 현상은 중독의 문제이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에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우리는 점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불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는 중독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에 특히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게임중독문제가 중요한 청소년문제가 되어 관련법들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초등학생부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중독문제를 넘어 가족의 해체, 청소년의 뇌기능저하 문제까지 논할 정도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터넷의 등장 이후 자녀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되었다.

청소년들의 때로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사이버인신 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적 행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의 분출은 자유로움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거부하면서 폭력적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청소년들이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듯이 인신공격을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들, 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고립시켜버리는 소위 왕따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러한 감정분출에 따른 폭력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학생들일수록 학교의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그 학생에 대한 루머 등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뜨리면서 익명적 공간에서의 공격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현실에서의 불안, 공격성향과 맞물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대단히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 진로환경

향후 미래 청소년 성장발달의 중요한 미시환경인 진로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 사회와 위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진로환경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성장률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희망세상 비전 2030」에서재인용한 김기호(2005)에 의하면, 인적자본이 정체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1년~2020년에는 1.90%, 2021년~2030년에는 1.82%, 그리고 2031년~ 2040년에는 1.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김기호, 2005, 김기현, 조혜영, 장근영, 이창호, 고원, 강홍렬, 2007에서 재인용). 해외노동력을 유입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5%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김기현 외, 2007). 또한 생산이 가능한 15세~64세 인구는 1960년 1,370만명(54.8%)에서 증가하여 2010년 3,598만명(72.8%), 2016년 3,70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0년까지 1천만명이상, 2060년에는 2,187만명(4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b).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에는 56.8%(2,043만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했으나, 2050년에는 45.2%(1,14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b).

노년층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경제시장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앞으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중요한 미래 과제임을 나타낸다.

둘째,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의 도입, 사회적 기업의 확충 등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취업난, 청년실업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실업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취업문을 제대로 열어 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이 20대부터 사회하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청소년들의 실업률은 현재 경제공황을 겪고 있는 유럽에 비해서는 물론 낮은 편이다(OECD, 2012). 그리고 OECD 평균인 16.2%보다도 낮은 9.6% 정도이다(OECD, 2012). 하지만 1995년 6.3%에 불과했던 실업률이 2007년 8.8%, 2011년 9.6%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곧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청소년, 청년층과 장년층, 노년층간의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III-20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청소년 실업자수	173	208	180	147	145	149	150	148
● 청소년 실업률	6.3	10.2	10.0	8.8	9.3	9.9	9.8	9.6
- 남자	7.8	12.3	11.7	11.4	11.5	11.9	11.2	12.1
- 여자	5.3	9.0	9.0	7.2	7.9	8.6	9.0	8.1

*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x 100

* 출처: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셋째,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29.1%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았다고 답하였다.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27.4%였지만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62.0%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2011, 여성가족부, 2012b에서 재인용). 향후 청년취업난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진입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1 지난 1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842	29.1	70.9
성별	남자	—	32.2	67.8
	여자	—	25.9	74.1
학년	중3	—	9.9	90.1
	고1	—	21.5	78.5
	고2	—	39.7	60.3
	고3	—	44.2	55.8
진학여부	진학	2,700	27.4	72.6
	비진학	142	62.0	38.0

* 출처: 고용노동부,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54쪽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 2012b, 2012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제 4 장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조사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

제 4 장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조사⁵⁾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물은 다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평균 4.6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평균 4.3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평균 4.08),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평균 3.91),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평균 3.6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평균 3.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서 설정한 메가트렌드가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환경의 경우에는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평균 4.08)과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평균 4.0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평균 4.00),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평균 3.83),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평균 3.58),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평균 3.58),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평균 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족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의 경우에는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평균 4.00)가

5)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평균 3.75),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평균 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또래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평균 4.0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평균 3.91),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평균 3.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학교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의 경우에는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평균 4.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평균 4.08),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평균 4.00),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평균 3.9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매체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의 경우에는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평균 4.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평균 3.91),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평균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진로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의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함께 내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를 위한 분석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IV-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4.66	.49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91	.6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3.58	.66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3.66	.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4.08	.99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4.33	1.15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3.58	.66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4.08	.79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3.83	.7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4.00	1.0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3.58	1.0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	4.08	.6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3.16	1.19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4.00	.85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75	.96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66	.65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3.91	.5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83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08	.79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4.58	.66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4.08	.51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00	.6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증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3.91	.90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3.91	1.16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4.00	.73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3.66	.88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안전·보호, 비행·범죄, 복지, 건강,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등 8개 청소년정책 분야별로 각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각 정책분야별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정책분야별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묻은 다음,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후 각 정책분야별 전문가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8로 나눈 다음 정책적 중요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평균 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평균 4.32),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평균 4.25),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평균 4.00),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평균 3.88),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평균 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서 설정한 메가트렌드가 정책적 중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환경의 경우에는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평균 4.2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평균 4.07),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평균 3.80),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평균 3.72),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평균 3.70),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평균 3.67),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평균 3.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족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의 경우에는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평균 4.1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평균 4.03),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평균 3.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또래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평균 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평균 4.04),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평균 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학교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의 경우에는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평균 4.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평균 4.1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평균 3.90),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평균 3.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매체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의 경우에는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평균 3.9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평균 3.78),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평균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환경 역시 대체적으로 3.0이상의 점수를 보여 진로환경 영역의 미시환경트렌드들이 향후 미래 청소년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함께 내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를 위한 분석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IV-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전체)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4.32	.7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4.00	.9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3.77	.86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3.88	.8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4.44	.7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4.25	.69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3.67	.93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70	.96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3.72	.8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4.28	.77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	4.07	.7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3.59	.97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3.80	.88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4.19	.74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84	.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4.03	.89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4.37	.72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92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04	.85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4.14	.79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90	.93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3.84	.9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충돌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4.16	.87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3.78	.9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96	.9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3.75	.98

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제 5 장

결 론⁶⁾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사회의 미래모습을 미리 전망해 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첫째, 1차년도인 올해 2013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보고, 둘째,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여섯 차원으로 나눠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추출되어 전망된 6가지 메가트렌드들은 다음과 같다.

6) 이 장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환경수준인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으로 나눠 앞의 여섯가지 메가트렌드들과 관련된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추출되어 전망된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자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문가조사 실시결과, 연구진에서 제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 모두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가 조사결과는 2차년도인 내년 2014년에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는 2013년~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될 연구로, 올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이 연구과제이며, 내년 2차년도 연구에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게끔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 몇 가지만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단기 전망적 연구가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했을 때의 거시적 미시적 환경트렌드를 추출한 장기 전망적 연구이므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5개년간의 청소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긴 전망적 청소년 정책이다.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할 때 이 연구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 트렌드를 모두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시나리오 방법을 통한 미래 청소년 정책 전망을 제시해보고자 할 때 거시적인 환경요인과 미시적인 환경요인 모두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할 때 거시적인 환경요인과 미시적인 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한 비전과 과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할 때 청소년 연령계층의 범주만이 아닌 사회전체적인 범주의 시야에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다섯 측면의 미시환경 영역으로 나눠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시나리오 방법을 통한 미래 청소년 정책 전망을 제시할 때 청소년들에게 인접하여 영향을 미치는 미시환경별로 나눠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전체 청소년정책 혹은 분야별 청소년정책을 제시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환경요인을 구분해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 일정	2014년	2018년~2022년	2022년~
2차년도 연구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수행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참조		→	
기타 중장기청소년정책 계획 수립시 참조		→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홍렬, 장혜경, 김혜영, 김영란, 최민영, 전미경, 정은증, 원영희, 이현희, 한정란, 장은정, 김미숙, 장화경, 홍미, 최은영, 성은수, 유호선, 이선행, 임인숙, 김수영, 최은정, 이동주, 윤홍식, 조막래, 윤성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가족기능 변화와 미래 가족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경찰청 (각년도). **사이버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고용노동부 (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탈북학생재학현황 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제투명성기구 (2011). **투명성지수백분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07.12). 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에서 2013년 7월 12일 인출.
- 기획재정부 (2011).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 김경동 (2002).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학**. 서울: 나남.
- 김규륜, 최용환, 유재의 (2012). **정치환경 변화전망과 가족의 미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강홍렬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I-총괄분야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 조혜영, 장근영, 이창호, 고원, 강홍렬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종합보고서**. 한국: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 (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2013년 연구사업계획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호 (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미숙, 장화경, 홍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정서적기능 변화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범수 (2009). **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6, 15-44.
- 김상욱 외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비행 유해환경 분야**.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은지 (2011). **2011 세계미래학회를 통해서 본 미래연구방법론과 정부 미래연구 동향**. 젠더리뷰, 22 (2011년 가을). 74-8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실태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헌태, 김영인, 고원, 허동원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참여인권분야: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현철 (2006).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미 4개국 비교(연구보고 06-R2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주, 손승영, 이진숙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가족분야: 청소년 가족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가족정책 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혜숙 (2005).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초중등학교의 미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혜영, 김상돈, 박선애 (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동아시아연구원, BBC (2011). **27개국 국민이 바라본 17개국의 국제적 평판**. EAI 여론 브리핑 제 95호.
- 맹용길 (1997). **미래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박병원, 홍성주, 박동오, 현재환 (2012). **과학기술의 변화전망과 가족의 미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규한 (2000). **미래사회학-미래연구와 21세기 설계**. 서울: 나남출판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3).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3년 3월호)**. 서울: 법무부.
-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용석, 최호진, 정다혜 (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유미, 진미석, 주용국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직업진로분야**.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여성가족부 (2010a). **조손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손 가족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재혼에 따른 양육기피로 나타나** -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b).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원영희, 이현희, 한정란, 장은정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교육기능 변화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우석진, 민세진 (2012). **여성노동의 변화와 여성가족의 삶**.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현숙, 이정미, 최정윤, 임후남, 권기석, 서영인, 류장수 (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홍식, 조막래, 윤성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 변화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홍식, 류연규, 송다영, 신경아, 윤성호, 이숙진, 안세아 (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진, 최슬기 (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선, 홍사훈 (2010).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4(2), 21-38.
-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통합적 미래연구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서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원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성운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경제사회지표 변화 연구-청소년정책 부문**.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인숙, 김수영, 최은정, 이동주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재생산 기능 변화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천순, 윤경원, 하연순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교육: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와 정책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임희진, 김지연, 이경상 (2008).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 (2011).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서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은기수, 이명진, 김영란, 주재선, 송치선 (2005). **가족실태조사 2005**. 서울: 여성가족부.
- 전상진, 김민, 최순중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문화여가분야: 청소년 문화여가 트렌드와 정책과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전상진, 김민, 최순중, 장근영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문화여가분야**.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정경희 (2012).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보건 복지 Issue & Focus, 147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석원, 정진철 (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 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조희금, 송혜림, 박정운, 권태희, 김정화, 김주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 정민자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 2010-15)**. 서울: 여성가족부.
- 중앙일보 (2011.6.22). **스페셜리포트: 한국 SNS 보급률 세계 최고**.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73362에서 2013년 7월 11일 인출.
- 진미석, 손유미, 주용국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직업진로분야: 직업진로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최은영, 성은수, 유호선, 이선형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미래 가족의 복지 기능 변화 전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연구보고 2011-01)**.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통계개발원 (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대전: 통계개발원.
-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대전: 통계개발원.
-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이혼통계**.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580&stts_cd=158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7).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1a).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1b). **장래인구추계: 2010-2060(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1c). **2011 한국의 사회지표(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1d). **2011 청소년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1e).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2b). **한국의 사회동향 2012(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2c). **2012년 사회조사결과(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2d). **2012 청소년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3a).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3b).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통일부 (2012).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통일부 (2013). **북한이탈주민현황**. 서울: 통일부.
- 하연섭 (2005). **지식정보화 사회와 교육의 미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허창덕 (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57-80.

- IOM 이민정책연구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10). **한국 종합사회조사**. 경기: IOM 이민정책연구원, 서울: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Sage : Newbury Park.
- Bronfenbrenner, U. (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 영(역)(1995). **인간발달 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Castells, Manuel (1988). *L'ère de l'information: société de réseaux*. Fayard: Paris
- Halwachs, Maurice (1955). *essai d'une psychologie des classes sociales*. Marcel Riviere: Paris.
- Juan, Salvador (1991). *sociologie de genre de vie*. PUF: Paris.
- Lacroix, Jean (1976). *les sentiments et la vie morale*. PUF: Paris.
- Le Breton, David (1992). *La sociologie du corps*. PUF: Paris.
- Le Bon, Gustave (1974). *psychologie des foules*. PUF: Paris.
- Levy, Pierre (1994). *L'intelligence collective*. 권수경(역)(2002). **집단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affesoli, Michel (1979). *la conquête du présent*. PUF: Paris.
- Maffesoli, Michel (1997). *du nomadisme* livre du poche: Paris.
- Miller, Riel. (2003). *The Future of the Tertiary Education Sector: Scenarios for a Learning Society*. Paper prepared for the OECD/Japanese Seminar on the Future of Universities, Tokyo, Dec. 11-12, 2003.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from <http://www.oecd.org/els/family/doingbetterforchildren.htm>
- OECD (2012). *Youth unemployment rate* from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youth-unemployment-rate-2012_unemployment-table-2012-1-en.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Simon& Schuster: New Work.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tudents in 38 countries*. Retrieved May 2, 2011 from http://www.theewc.org/uploads/files/ICCS_2009_International_Report.pdf.
- Simmel, Georg (1988). *Tragédie de la culture*. Ed Petite biblio: Marseille.
- 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0). *The World Values Survey*. Retrieved July 12, 2013, from http://www.worldvaluessurvey.org/index_organization.

부 록

- 부록 1.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2.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안전·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3.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비행·범죄)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4.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복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5.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건강)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6.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교육)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7.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진로·직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8.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활동)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부록 9. 미래 청산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관리·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부록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 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 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 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 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각 메가트렌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나타날 가능성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2.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안전·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 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아동학대, 아동실종, 안전사고, 학교폭력,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인터넷중독, 성보호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부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안전·보호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3.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비행·범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비행예방, 범죄예방, 교정교육, 피해자지원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 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청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비행·범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4.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복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취약계층 청소년지원(가출청소년지원, 학업중단청소년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 드림스타트사업운영,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보호지원, 시설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상담지원(상담서비스, 청소년 전화 HelpCall388, 청소년동반자 YC프로그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CYS-Net, 취약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DoDreamZone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 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제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복지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 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5.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건강)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체격·체력, 영양·비만, 음주·흡연, 정신건강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 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여성가정, 주부, 핵가족, 노인가정, 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제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건강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기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건강**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6.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교육)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학업성취, 학교생활만족,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생교육지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탈북학생교육지원 등)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제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교육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 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기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또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또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 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교육**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7.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진로·직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직업역량 개발, 일자리 마련, 고용촉진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여성가정, 주부, 핵가족, 노인가정, 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정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교육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 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애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8.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활동)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지원 등)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제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성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교육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家主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 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기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 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부록 9.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향후 정책적 중요성(관리·참여)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에서는 2013년~2014년 2년간에 걸쳐,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환경과 정책을 전망해보는,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내년 2014년에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1)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들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2)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추출한 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이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권리 증진, 참여활성화) 정책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고견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이 연구에 유용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을 대신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02-2188-8825) 올림

● 전문가 조사 수당지급관련 사항

전문가 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에 비취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완료 후, 이 조사지 맨 뒷부분에 첨부해드린 수당지급명세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연구진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차원(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별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각 메가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가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핵가족, 노인가구, 조손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개인의식 차원에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식이 자리잡았던 사회였지만 최근 들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등장,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의 저하,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상스럽지 않은 사회분위기,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고립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개인주의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개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러한 고립사회로의 전환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메가트렌드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관계 차원에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감정사회로의 전환이다. 감정사회는 감정적인 것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과 인식의 척도가 되었던 부분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마페졸리(Maffesoli, 1979: 45)에 의하면 현대에 사는 개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약속했던 유토피아가 결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류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대표적인 것으로 의학과 과학 등)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으로서도 오랜 기간 기능하였다. 감정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분출시키면서 자유로움, 상상력,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감정적인 것의 복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상품소비, 관계맺기 등에 있어서 감정사회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감정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현재주의의 부상이다. 이 현재주의는 특히 사이버 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일시적 공동체', 일종의 '부족(tribe)'에서 잘 나타난다. 성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지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부족에서 이탈할 수 있다. 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일 뿐이다. 부족 안에서는 계약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미래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일시적임과 현재의 가치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가치(la valeur dionysiaque)이다. 이는 마페졸리의 개념을 빌자면 '현재의 윤리'(l'éthique de l'instant)이다(Maffesoli, 1979).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현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 메가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인식 차원에서 저신뢰사회와 갈등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저신뢰사회이다. 여기서의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많이 낮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수준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지수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사회의 특징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신뢰사회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메가트렌드는 사회구성원 집단들사이의 상호불신과 사회통합력의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다문화갈등과 세대갈등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사회구조 차원에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양극화사회이다. 한국사회는 1970-80년대 압축적 근대화를 넘어서면서 부의 분배가 상류층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 중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 중산층의 중심이었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층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가 들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취업은 기업의 재정난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들이 계층의 하단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회성원들이 이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낳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도 증대시킨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미래에는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메가트렌드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연구진 의견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메가트렌드로 기술환경 차원에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추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가트렌드는 네트워크사회이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정보와 문화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들을 네트워킹화하여 하나의 커다란 목소리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적인 유대, 신뢰관계의 유지 등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은 동시에 사회적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 루머, 사생활침해적인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그 진위가 판명나기도 전에 '사회적 사실'로 굳어버리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 소외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따돌림은 그 예이다. 또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 파밍 등의 수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해킹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중독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6-1. 위의 메가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II.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가족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매체환경, 진로환경)별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여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각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의 부양 역할이 점점 더 사회교육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확산되고,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기존의 양상에서 벗어나, 노인 조부모 및 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이 재정립되는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의 기능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가 증가하여 이들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연구진 의견

다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이탈행위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5)-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연구진 의견

여섯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핵가족 비율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부모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등 가족내 부모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6)-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6)-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연구진 의견

일곱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등 애착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7)-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1-(7)-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포래환경 : (1) 다문화 포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차 다문화적인 포래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다문화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다문화 포래환경에서의 다문화갈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점차 애착관계적인 성격에서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감정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왕따)현상과 같은 폭력적 관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2-(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대 학생비율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개선, 경쟁학생수의 감소 등 입시경쟁의 약화, 전공 및 진로선택 폭의 확대, 스마트한 교육환경 등의 긍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집중지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증대, 부모에의 의존 증대 및 자립심의 약화, 타인에 대한 이타심 및 배려심 등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성 및 사회적 역량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고립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의 확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 역량의 약화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3-(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십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을 통해 적극적 자기표현을 하고 있고, 공유행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도전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기술을 통한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감정에 기초한 행위가 강화되며,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시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참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연구진 의견

넷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립사회, 감정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 등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거부하는 문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거부와 감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의견쏠림현상의 심화,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중독현상의 심화, 사이버인신공격,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의 증가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4)-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4-(4)-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연구진 의견

첫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향후 경제성장률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며 향후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1)-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1)-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연구진 의견

둘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저신뢰사회, 양극화사회, 네트워크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의 청년실업, 청년취업난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청소년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의 가능성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2)-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2)-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 미시환경 트렌드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연구진 의견

셋째, 여러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사회, 양극화사회 등의 메가트렌드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청년취업난, 청년실업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완전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로 많이 몰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의 증가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3)-1. 위의 미시환경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요(아래 빈칸에 √ 혹은 ○ 표시).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5-(3)-2. 위의 질문 및 응답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적어주시요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조사수당 지급명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주신 정보는 수당지급용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Abstract

The Prospect for the Future of Youth Environment Change and Youth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ject the environment change of future youths until the year of 2040 and to present the vision and subject for a future youth policy thereby. To achieve this, first, this study projected the environment trend of future youths in 2013, and second, tried to project the vision and subject of a future youth policy for 2014 based on the projection for 2013.

In the first year study for 2013, first, this study produced six mega-trends of population structure, personal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 social structure, and technic environment at the level of the entire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Second, it produced 20 micro-environment trends by dividing the micro-environment of youths into family, peers, school, media, and course enviro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statistic data. Third, it finally presente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youth environment trend by surveys on experts about the strategic importance and potential appearance of the six mega-trends and 20 micro-tren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ega-trends, first, present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structures of old age society and family on the dimension of population structure, second, the strengthening of isolation society and individualism on the dimension of personal consciousness, third, the strengthening of emotion society and present pursuits on the dimension of social relationship, fourth, the increase of low trust society and confliction on the dimension of social recognition, fifth, the increase of bipolar society and risk on the dimension of social structure, and, sixth, the increase of network society and

risk on the dimension of technic environment. The micro-trends presented seven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environment, three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diversified culture and peer environment and of the conflicts between multiple cultures in the area of peer environment, three trends such as the weakening of personality and social power in the area of school environment, four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by youths in the area of media environment, and three trend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need for the strengthening of youths' economic power in the area of course environment.

Key words : Prospect for the future youth environment trend, Mega-trend, Micro-environment trend

연구보고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65-2 93330

